

定慧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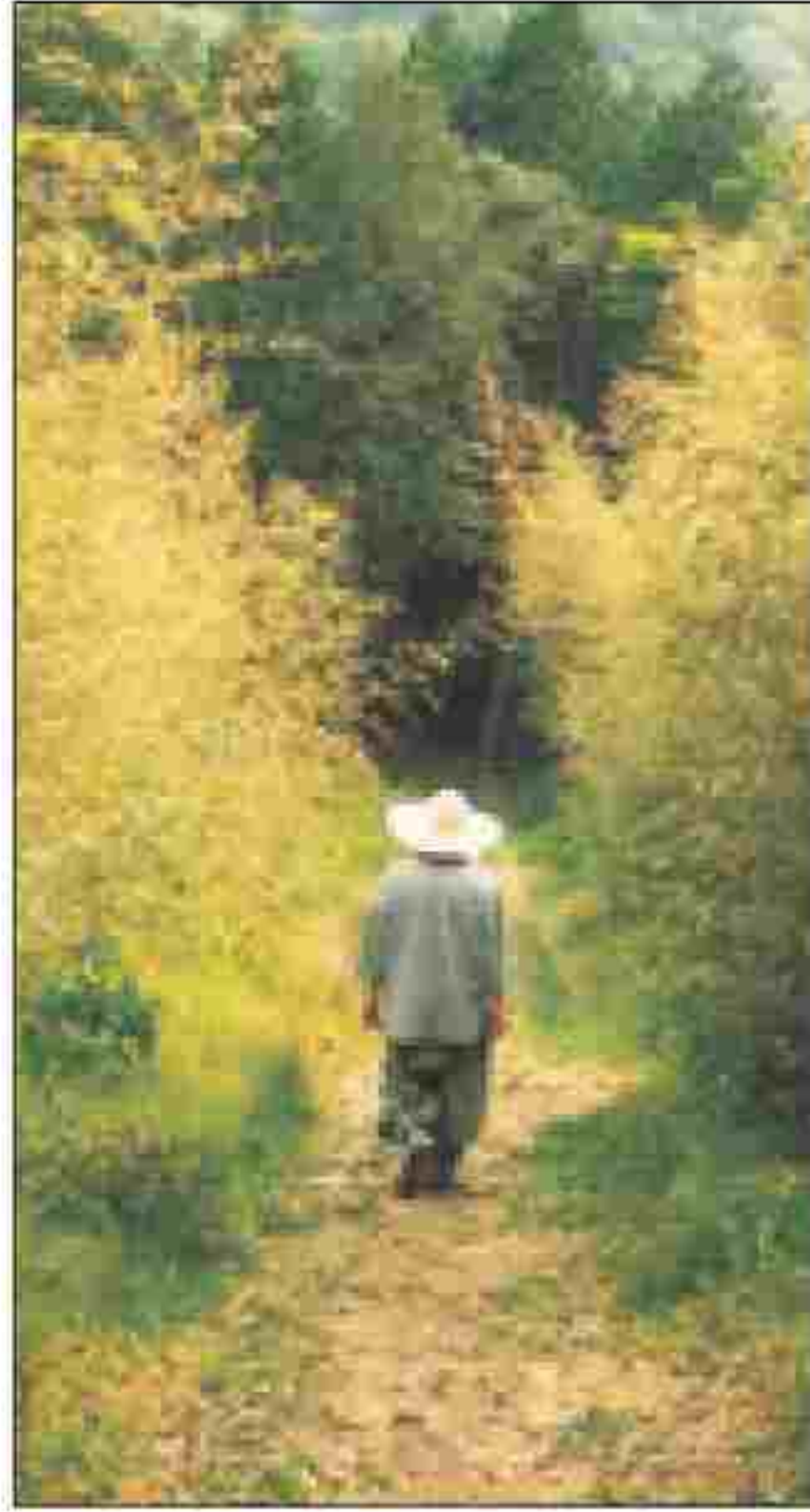
불기 2548년 여름 | 제29호



교수논단 욕망해소의 불교적 이해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면서
정혜탐방 벽송사·서암정사 조실 원응구한 스님
학인기고 수능엄경 사약장을 공부하며
몽산법어(영역)4
바람을 메고 대만불교를 다녀와서

송광사 전통강원

出家精神



출가란 무엇인가?

출가라는 것은 부모, 친족과의 인연을 멀리하고 가정과 재산을 버리고 수행 생활에 몸을 던지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를 말한다. 출가란 세간에서 이 수행세계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을 말한다. 이 한 발자국을 내딛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를 것이다.

우리 출가자는 세간의 명리를 버리고 권속의 기대와 눈물을 등진 채 삭발염의한 수행자로서, 그 근본목적은 번뇌를 쉬고 생사를 해탈함에 있다. 그러나 근자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수행자로서의 본분과 자세를 잃고 세간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세간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상만을 진정한 실체로 인정하고, '행복은 물질의 이용과 소비에 따른 쾌락의 향유에 있다'고 여기어 인간의 심신을 수고롭게 하고 있다. 다양한 가치관의 돌출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보편적인 규범과 도덕은 흔들리고, 사회는 고립과 분열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사조의 영향이 우리 승가에도 침습되어, 계·정·혜 戒定慧의 가르침이 희미해짐과 함께 계율정신의 부재, 지계정신의 쇠퇴, 출가목적의 불명확성, 무소유정신의 쇠퇴, 대승사상의 부재 등으로 승가가 사회에 물든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출가라는 의식에 의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생활을 했던가라는 점을 좀 더 짚어 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다양하게 발생해오는 현대라는 시간과 불교라는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답들을 돌출해 낼 수 있는 작업도 필요하다. 정말로 진정한 출가의 모습을 한번 더 돌이켜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를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발보리심發菩提心이란 곧 부처님의 출가정신이다. 발보리심의 내용은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최초의 원願이다. 발보리심은 세상의 괴로움을 느끼는 것에서 비롯된다. 개인이든 사회이든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진리를 찾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발심, 곧 보리심인 것이다. 따라서 출가자의 출가동기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하겠다는 서원에 부합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출가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그 깨침을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하화중생으로의 발심發心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심과 신심으로 출가정신을 되돌아 보자.

“마땅히 달처럼 살고 처음으로 출가한 사람처럼 수줍어하며 겸손하라.
물을 건널 때나 가파른 산을 오를 때 조심하듯 자신을 잘 단속하라.
남이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지을 때 자기 자신이 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스스로 뽐내지도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도 말라.”

定慧社

불기 2548년 여름호 | 통권 제29호

- 2 사진 속 이야기
- 4 방장스님 법어
갑신년 하안거 결제 법문 | 범일 보성
- 6 교수논단
육망해소의 불교적 이해 | 원경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면서 | 도암
- 18 기획연재
송광사 산내암지와 국사탑 - 청진암지
- 21 지대방 이야기
소중한 인연 | 혜산
참회존자 | 유신
행자생활 | 지운
새로운 발견 | 지월
봉정암 | 보명
- 26 정혜탐방
벽송사·서암정사 조실 원응구한 스님 | 편집실
- 30 목우만평
경허선사의 覺 | 서림
- 32 목우단상
편입생 일기 | 설웅
방부 들입니다 | 연공
- 34 특별취재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을 다녀와서 | 편집실
- 39 경전 한 구절
소문
- 40 바람소리 한 자락
만행 | 연옥
상생죽필문 | 인법
- 44 詩가 있는 풍경
달빛 | 적문
관 | 혜각
산사의 밤 | 향음
- 47 학인기고
수능엄경 사약장을 공부하며 | 능인
몽산법어(영역)4 | 해안
- 63 바람을 메고
대만불교를 다녀와서 | 대정
- 66 화보로 보는 강원 소식
- 71 소년소녀가장 후원안내
- 72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탐심과 진심과 치심 모두 소멸하고
출가 사문으로서 못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어 제도하고자
삼보일배 정진합니다.

글·사진 | 편집실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현진(강주)
편집인 | 해진(입승)
편집장 | 인효
편집 | 혜명·인궁·청사
사진 | 혜명·인궁

발행일 | 불기 2548년(서기 2004년) 8월 25일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화 | 061) 755-5302
인쇄 | 부다기획 062) 225-8825



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글 | 승찬僧讚(?~606)·사진 | 편집실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나니
주의할 건 오직 하나, 밭다 곱다 가림이네.
밭다 곱다 가리는 그 마음만 버리면
저 하늘 보름달이듯 넓게 빛나리라.

승찬僧瓚(?~606) 선종禪宗 제3조第三祖. 서주徐州 사람. 2조二祖의 법맥法脈을 잇고 서주의 일완공산日宛公山과 태호현太湖縣의 사공산司空山을 왕래하며 일정한 거처가 없이 지냈다.

방장스님 법어

갑신년甲申年 하안거 결제 범문法門

범일 보성 | 조계총림 방장



효봉노사曉峰老師께서 말씀하시되, 상근인上根人은 결제結制하지 않고 해제解制하지 않으니,

선지식일언지하善知識一言之下에 돈망생사頓忘生死하고, 중근인中根人은 한번 결제하니 초발심初發心할 때 결제하고 견성見性할 때 해제하며, 하근인下根人은 시시각각時時刻刻으로 결제하고 해제하니 일생一生을 각고정진刻苦精進해서 금생今生에 득도得道하는 이도 있고, 금생공부今生工夫가 인인이 되어 내생來生에는 틀림없이 견성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근기根器가 수승殊勝해도 공부工夫를 게을리 하면 내생에도 이를 수 없고, 비록 하근열기下根劣器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금생에 해 마치기를 간절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고인古人이 송頌에,

경경답지공인지輕輕踏地恐人知하라
어소분명개막의語笑分明更莫疑하면
지지지금맹제취智者至今猛提取하여
막대천명실각계莫待天明失却鷄하라.

살뫼살뫼 땅을 밟아서 남이 알까 두려워하라.
말과 웃음에 분명해서 다시 의심이 없거든
지혜 있는 이는 이 때 용맹을 다해 정진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려 닭 울 때를 놓치지 말라 하였다.

대중大衆은 결제해제에 상관없이 부지런히 정진精進하라.

야선도진무수인野船渡盡無數人인데
만강풍우자종횡滿江風雨自縱橫이로다.

나룻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건네주지만
강에 가득 불어오는 비바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하좌下座. 定慧社

욕망해소의 불교적 이해

원경元鏡 | 松廣寺講院 學監

ekayanawk@hanmail.net

프롤로그 : 혼돈에서 질서로
제1 화두 : 깨달음과 교화의 관계
제2 화두 : 욕망해소의 불교적 이해
제3 화두 : 성불의 현대적 의미
제4 화두 : 사회현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
제5 화두 : 수행의 이론과 실천
에필로그 : 행복과 정토사회 구현



‘감각적 쾌락’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대로 잘 되면, 그는 인간이 갖고자 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한다.

욕망을 이루고자 탐욕이 생긴 사람이 만일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는 화살에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번민한다.

발로 뱀의 머리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모든 욕망을 피하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확립하고 이 세상의 애착을 넘어선다.

농토나 집터나 황금, 마소나 노비, 고용인이나 부녀자, 친척 그밖에 여러 가지를 탐내는 사람이 있다면 온갖 번뇌가 그를 이기고 위험과 재난이 그를 짓밟는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파손된 배에 물이 새어들듯이.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바른 생각을 지키고 모든 감각적 욕망을 회피해야 한다.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듯. 그와 같은 욕망을 버리고 강 건너 피안에 도달한 사람이 되라.

『숫타니파타』 - 제4장, 1욕망

인간 존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나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생노병사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연원淵源하는 것일까. 역사상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궁구하신 석존께서 태자시절 인생에 대해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생사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금에 걸쳐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제아무리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외면한다고 하여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외면하면 할수록 문제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된다.

이처럼 생사 문제에 근원적으로 내재된 감정은 어떠한 성질의 에너지일까. 과연 인간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일까.

흔히 우리는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말하기를 파리가 꿀 향아리에 빠지듯, 나방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날아들듯,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듯 한다는 비유를 쓰고 있다. 고래로부터 대체적으로 인간이 향유하는 욕망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을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으로 '주색잡기酒色雜技'가 있다.

더구나 오늘날은 합법적인 오락물, 또는 오락성 경기競技 조차도 인간의 사행성을 자극하여 특정한 대상에 대한 욕망의 늪에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폐인을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취미생활을 하며 건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락적 대상에 탐닉하여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카지노 오락에 빠져 자신의 전 재산을 잃고 그것도 부족하여 자식의 카드로 몰래 대출하여 쓰는 등 놀음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가족들 앞에서 팔을 잘라 카지노에 가지 않기를 맹세하였다고 한다. 한동안은 가족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정상인으로 생활하던 어느 날 생일을 맞이하여 자식들이 약간의 용돈을 주게 되었다. 그 동안은 스스로 돈을 주머니에 지니지 않음으로써 놀음의 유혹을 떨쳐버리려고 해서 잘 참았다. 돈이 생기자 그는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무시하고 카지노로 달려가 잘려

나간 손으로 놀음을 하여 결국 돈을 다 잃고 나서야 놀음하는 업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욕망의 세력은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제어되지 않을 정도로 맹렬하고 무서운 법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전한 의미에서 재물욕財物慾, 색욕色慾, 식욕食慾, 수면睡眠慾, 명예욕名譽慾의 5욕락을 향유하기를 바라며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서도 재가불자들에게는 보시布施, 지계持戒, 천생에 태어남(生天)을 재가 수행의 이상적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가 수행자들의 이러한 목표들을 살펴보면 석존께서 재가자들이 인간의 5욕락을 누리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의 중도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세간에서 지나친 욕망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지만 건전한 방법을 통해 그 결과로 5욕락을 즐기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라고 하겠다. 어떤 존재이든, 심지어 인간이 해충이라고 여기는 하찮은 미물들까지도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다. 다만 사람에 따라 행복의

심리학에서는 욕망과 같은 개념으로 프러스트레이션 Frustration(좌절감·욕구불만)이 있다. 이는 목표하는 행동이 어떤 조건에 따라 저지당함을 뜻한다. 그 결과 그는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행동 등을 하게 된다. 이는 S. 프로이트 Sigmund Freud가 사용한 이상행동을 해석하기 위한 가설이지만, 욕망과 유사한 상태이다. 그는 욕망은 이성理性을 지닌 사람이라면 물리쳐야 할 저급한 정신활동이라고 하였으나 J.P. 사르트르 Jaen-Paul Sartre는 욕망은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추구하여 결함이 없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정신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기준과 가치가 다를 뿐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출세간의 행복인 해탈(解脫), 열반(涅槃)을 이상적인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세간적인 욕망은 철저히 배제된다. 세간의 욕망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유한한 감정일 뿐이다. 절대적 즐거움인 열반락(涅槃樂)을 얻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망을 벗어난 초월적 수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욕망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세간적인 길과 출세간적인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욕망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에너지는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 그러나 한 존재가 지닌 그 에너지의 질(質)이 맑은가(淸淨) 탁한가(不淨)에 따라 현실적인 작용에 있어서 전혀 차원이 다르게 나타난다. 청정한 에너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하여 스스로 파멸의 나락으로 빠져 버린다.

또한 개인의 마음 씩씩이에 따라 에너지가 미치는 범위가 다르게 나

타나기도 한다. 마음이 가진 무한대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기심을 버림으로써 숭고한 에너지가 사해(四海)에 마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간 독재자들의 사악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반면 이타심으로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바친 성인들의 모습도 보게 된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어떻게 출세간적 측면에서 인간의 욕망을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석존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석존의 출가 직전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경전이 있다. 『장아함경』 〈유연경〉에 의하면 “비구들이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나는 매우 행복했다. 고팍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아버지의 집 정원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어 한쪽에는 청련(靑蓮)이, 또 한쪽에는 홍련(紅蓮)이 피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백련(白蓮)이 피어 있었다. 나

의 방에는 늘 카시국에서 나는 고급 전단향내가 그윽했고 나의 의복은 속옷도 겹옷도 모두 카시국의 특산품(실크)이었다. 내가 밖에 나갈 때는 비나 이슬을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막기 위해 늘 백산(白傘)이 받쳐졌다.

또 내게는 겨울만 나는 별장과 여름을 지내는 별장, 그리고 봄·가을에만 사는 세 개의 별장이 있었다. 여름 녀 달 동안의 우기에는 여름 별장에서 밤낮없이 음악과 춤을 즐기고 밖에는 나가지 않았다. 다른 집에서는 하인이나 일꾼 그리고 식객들에게 거친 음식에 소금국을 곁들여 주었으나 나의 아버지 집에서는 이들에게도 쌀밥과 고기를 주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태자시절 석존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살았으나 언제나 생노병사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으로 향락에 빠진 생활을 하지 않았다.

석존은 나중에 불전문학에서 사문유관(四門遊觀)으로 표현되는 생사의 실상을 보고 나서 “나의 건강에 대한 교만은 산산이 토막나고 생의 교만은 티끌(微塵)처럼 부서졌다”고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과

마음의 화가(畫家)와 같아서 온갖 그림(삼라만상)을 그리네. 오온(五蘊)도 마음 따라 생겨나니 마음을 떠나서 육신은 갈 곳이 없어라. 부처도 마음이요, 중생도 마음이니 화가와도 같은 마음을 알기만 하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모두 하나라네.

연 석존께서 어떻게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해결하였는지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다.

다음은 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점을 궁구해 보겠다.

보통의 인간이면 누구나 풍족한 삶을 원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물질세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만족감이 없다고는 없어서 끝없는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누구나 소욕지족(小慾知足)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관념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상대적인 물질세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근원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제어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평화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욕망이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해야 세간적인 행복을 실현하면서 살 수 있을까.

보통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신구의(身口意)라는 통로를 통하여 활동하게 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3업(業)이라고 표현한다. 인

간은 본래 마음의 근원에 이기심이 잠재되어 있어서 3업을 자신만의 욕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3업 가운데 신업(身業), 즉 몸으로 짓는 업을 통해서 다른 물 생명을 해치는 일(殺生), 주지 않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일(偷盜), 성적(性的)으로 청정하지 못한 행위(邪淫)를 하게 된다.

욕망이 잠재된 인간의 업이란 본래 그러한 속성, 즉 몸으로 짓는 업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3악업을 짓는 쪽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입으로 짓는 업인 구업(口業)을 통해서 허망한 말(妄語), 꾸며대는 말(綺語), 이간시키는 말(兩舌), 험악한 말(惡口)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업인 의업(意業)으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라는 3독을 짓는다.

인간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앞의 신업과 구업을 잘못 지으면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본래 인간의 신업과 구업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화되지 않는 한 악업

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신업과 구업 보다 의업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탐진치의 3독번뇌는 욕망의 근원적인 부분이며 그 세력이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은 끊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하여 신업과 구업은 거친 번뇌이기도 하고 누구나 소속된 그곳에서 그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스리기가 쉽다고 본다.

그런데 현상 사회는 개인이 신업과 구업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을 격리시설(교도소)에 수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누구나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신업과 구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퇴장 당하게 된다. 이것이 사회의 법칙이다.

그러면 종교적 차원에서 의업은 어떻게 작용할까. 『화엄경』 〈아마 천궁 계찬품〉에서는 “마음의 화가(畫家)와 같아서 온갖 그림(삼라만상)을 그리네. 오온(五蘊)도 마음 따라 생겨나니 마음을 떠나서 육신은 갈 곳이 없어라. 부처도 마음이요,

업의 속성은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는 것과 같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어디로든 그때 그때의 욕망에 따라 춤추듯 한다.

중생도 마음이니 화가와도 같은 마음을 알기만 하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모두 하나라네”라고 설하여 마음이 온갖 행위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정하면 청정한 행위와 언행을 할 것이고, 마음이 부정하면 부정행위와 말씨를 일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세계가 청정하며,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세계가 더러워지게 마련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결국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번뇌인 무명無明과 욕망慾望을 정화하지 못하는 한 부정적인 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지닌 에너지(업, 욕망)의 속성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행을 통해 청정한 에너지로 대체[replace]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행위를 통해 삶의 질을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사는 6도 윤회의 세계는 10선업과 10악업의 정도에 따라서 감득感得되게 된다. 즉 10악업을 상품上品으로 지었을 경우, 즉 가장 못된 악행만 골라서 지은 존재는 지옥의 세계로 가고, 다음으로 중간 정도의 악업을 지은 존재는 아귀의 세계로 가며, 다음으로 약하게 악업

을 지었다면 그는 축생계에 태어나게 된다. 이처럼 10악업을 지으면 3악도에 태어나 그 악업의 대가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

다음으로 10선업에 대해서는 상중하에 따라서 천상·인간·아수라의 세계에 태어난다. 비록 선업을 가장 잘 닦으면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 행복도 완전한 것이 아니어서 복이 다하면 낮은 차원의 세계로 떨어져 윤회를 계속하게 된다. 아무리 천상 세계라도 6도 윤회輪廻의 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존재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욕망의 근원인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현상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상대적인 분별의 차원에 머물러 마음을 쓰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이 근원적으로 욕망을 모두 버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행위를 통해 삶의 차원(質)을 높여가야 한다. 우리가 욕심을 적게 가진다고 해도 근원적인 욕망은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이 일어나면 다시 그로 인하여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 마치 그림자가 몸체를 따르듯이 선한 행위는 즐거움이 따라오고 악한 행위는 고통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관성慣性과 같아서 이제까지 움직여 왔던 방향으로 계속하여 나아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분석해 보면 업(행위)이 가지고 있는 관성을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버릇이라는 것은 이상하여 생각에 앞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몸과 마음이 움직여 간다. 말의 경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종래에 익혀왔던 언어적 습관이 튀어나온다. 업의 세력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업을 잘 다스리면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며 행위를 잘못 익혔다면 결과는 늘 고통으로 보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3업을 잘 다스림으로써 함부로 욕망에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된다.

업의 속성은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는 것과 같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어디로든 그때 그때의 욕망에 따라 춤추듯 한다. 중생들은 아무리 재미있고

즐겁고 맛있는 것도 금세 실증을 느끼며 다른 대상을 찾아 쉼 없이 헤매고 있다. 어린 아이가 노는 것을 보면 그가 전생에 익혔던 기질[業]대로 그 업에 끌려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아이가 노는 것은 천진난만하기도 하지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과거 업의 그림자로 덮혀 있다는 점이다. 아이가 차츰 자라면서 교육에 의해 새로운 습관과 행동양식이 생겨나면서 과거 업의 세력은 약화되고 서서히 현재 업의 세력이 강화되며, 이에 따라 미래의 업이 결정되는 삼세三世에 걸쳐서 업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윤회輪廻의 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선, 악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마저 뛰어넘어 출세간의 수행을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인간의 생노병사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근원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송두리째 뿌리 뽑음으로서 고통으로부터 해탈解脫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석존의 경우 욕망을 대치하는 방법은 보통의 인간들과 달리 역설적인 느낌이 들지만 '욕망을 버림

으로서 욕망을 해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욕심이란 본래 객관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인간의 생각에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6근을 잘 다스린다면 '욕망을 버림으로서 욕망을 해소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잡아함경』에서는 “우리가 대하는 객관대상 그대로가 욕망이 아니다. 이 세상의 갖가지 대상에 대하여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다. 우리가 만나는 갖가지 사물은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니 그것에 대하여 일으키는 애착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니라”고 설하였다.

보통 사람들은 재물이든 명예든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평범한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 집 한 채 짓고 그 공간 속에서 범속하게 살다가 간다. 제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도 결국은 죽는 순간에 두려움 속에 저승으로 간다. 이것이야말로 가진 자의 고통이다.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불행한 것이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나방

이 불꽃 속에 뛰어들 듯 그렇게 욕망에 얽매어 살다가 가는 것이 중생이다. 이에 비하여 출세간의 해탈을 성취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진실로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 보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얽매어 그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간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말하고, 배가 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고 한다. 보고 싶으면 '보고파서 죽겠다.'고 하고 곧 싫증이 나면 '보기 싫어 죽겠다.'고 말한다. 상대적인 대상 경계에 늘 끌려다니며 대상에 떨어져 버린다. 욕망에 포획된 자는 늘 불만족인 상태로 욕망에 끌려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에게 참다운 자유란 없을 것이다.

세간 사람들은 욕망을 송두리째 버리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래 세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애욕愛慾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에너지는 삶

우리가 대하는 객관대상 그대로가 욕망이 아니다. 이 세상의 갖가지 대상에 대하여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다. 우리가 만나는 갖가지 사물은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니 그것에 대하여 일으키는 애착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니라.

의 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욕망으로 인한 고통을 바르게 알아서 악업을 선행으로 대치하는 길이 세간적 행복의 길이라고 하겠다.

출세간적인 삶은 철저히 욕망에서 벗어난 무소유의 삶을 지향한다. 욕망은 집착을 낳고 집착으로 인하여 인간은 번민하게 된다. 따라서 번뇌는 욕망을 비움으로 충만되었을 때 비로소 해소되게 된다. 이미 번뇌가 지혜로 질적 변화가 된다면 욕망은 중생을 향하여 자비행으로 회향되게 된다. 불보살님의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은 완전히 정화된 욕망 - 이때는 그 에너지를 아노다라삼막삼보리(無上正等正覺)라고 부른다. - 이 인연에 따라 중생 속으로 널리 작용되게 된다.

세간에서의 욕망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곳에 쓸 것이 아니라 이타행에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그 에너지는 바로 지혜로 전환된다. 불보살님의 자비행은 철저한 공공 - 自他不二 - 의 체현體現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된다.

비록 중생의 경우라도 베푸는 행위(利他行)를 통해 욕망을 차츰 지혜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는 진리의 길, 절대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定慧社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 만족할 줄 모르네
욕심은 괴로움만 줄 뿐
즐거울 줄 모르니
슬기로운 이는
욕심의 해를 알아야 하리라.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고 한들
욕심 많은 사람 무엇 하나 만족할까?
슬기로운 이는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하늘의 오욕락을 얻을 지라도
그것에 즐거워 않고
애욕을 끊어 집착을 버리면
비로소 등정각의 제자이니라.
『중아함경』 〈사주경〉에서

〈다음호 계속〉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을 독송讀誦하면서

도암道岩 | 松廣寺講院 講師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을 독송하면 공덕功德이 크다는 말을 듣고 시작해 보았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처음 경經을 대할 때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모두 좋다고 하는데 아무리 읽어 보아도 잘 이해가 안 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는 무엇을 어려워했는지 살펴보고, 현대現代를 살아가는 우리 범부凡夫가 일상日常에서 어떻게 실천實踐할 수 있는 가르침인지 이해理解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초심자가 보현행원품을 독송할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한다. 4단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 화엄경華嚴經: 동진東晉의 불타 발타라가 번역翻譯한 것은 60권 券, 당唐나라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은 80권, 당나라 반야般若가 번역한 것은 40권 (입법계품만). 80권으로 된 것은 39품을 7處 9會에서 설說한다. 보리장회菩提場會 6品, 보광명전회普光明殿會 6品, 도리천궁회兜率天宮會 6品, 야마천궁회夜摩天宮會 4品, 도솔천궁회

兜率天宮會 3品, 타화자재천궁회他化自在天宮會 1品, 보광명전회普光明殿會 11品, 또 보광명전회普光明殿會 1品, 서다림회逝多林會 1品(입법계품)이다.

보현행원품은 40권 화엄경 가운데서 제 40권第四十卷 만을 가리킨다. 제 40권만을 분리해서 편집編輯한 별행本別行本이 있다.

화엄경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약명略名이다. 대방광은 소증所證한 법法이 되고 불佛은 능증能證한 사람으로 대방광大方廣의 이理를 증득證得한 불佛이며,

화華로는 만행萬行이 피어남을 비유한 것이고 엄嚴은 과지果地의 법을 장식裝飾하고 과지果地의 사람을 이룬다. 경經은 상법常法을 관천貫穿한다는 의미다. 자세한 설명은 화엄현담華嚴玄談 총석경제總

한쪽으로 치우쳐 한 가지만 닦아서 안된다. 원願만 있고 행行이 없는 것은 사람이 강을 건너고자 하면서도 배나 뗏목을 준비하지 않아서 항상 차안此岸에 있게 되고 피안彼岸에 건너갈 수 없는 경

는 과거過去 현재現在 미래未來를 이룬다.

과거세過去世 부처님은 과거세에 성도成道하여 과거세 중생을 제도하신 분이고, 현재세現在世 부처님은 현재세에 성도하여 현재세 중

예경禮敬은 몸과 말로써 예의禮儀를 다하고 마음으로 공경恭敬을 다하는 태도態度를 항상 동시에 실천實踐하는 행위行爲이다. 예경제불은 깨달음을 이루었거나 이를 모든 분에 대하여 몸과 말로써 예의를 다하고 마음으로 공경을 다하는 태도를 항상 동시에 실천하는 행위行爲이다.

釋經題에 있다.

2. 보현보살普賢菩薩: 문수사리文殊舍利보살과 함께 석가여래釋迦如來(또는 비로자나여래)의 협사脇士로 유명한 보살이다.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여래如來의 왼편에 모시고 여러 부처님 네의 지덕智德 체덕體德을 맡음에 대對하여 보현보살은 오른 쪽에 모시고 이덕理德 정덕定德 행덕行德을 맡았다. 또 문수보살과 같이 일체보살의 으뜸이 되어 언제나 여래의 중생衆生 제도濟度하는 일을 돕고 드날린다. 형상形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나누면 흰 코끼리를 탄 모양, 연화대蓮花臺에 앉은 모양의 2종이 있다.

3. 행원行願이란 신身의 행行과 심心의 원願을 말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바탕이 되어 대사大事가 이루어지므로 함께 닦아야만 하고 어느

우와 같다. 그러므로 구체적具體的인 우리의 행行을 원願이 인도하여 궁극의 경지인 보리열반菩提涅槃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행원이다. 보현보살普賢菩薩의 십대행원十大行願은 모든 원願 중에서 가장 수승한 까닭에 '원왕願王'이라고도 부른다.

4. 십대원왕十大願王: 1)예경제불禮敬諸佛, 2)칭찬여래稱讚如來, 3)광수공양廣修供養, 4)참제업장懺除業障, 5)수희공덕隨喜功德, 6)청전법륜請轉法輪, 7)청불주세請佛住世, 8)상수불학常隨佛學, 9)항순중생恒順衆生, 10)보개회향普皆廻向이다.

1) 예경제불禮敬諸佛: 먼저 제불諸佛은十方三世의 모든 부처님을 이룬 말이다.十方은 공간적空間的으로 한량限量이 없는 영역領域까지를 포괄包括하고, 삼세

생을 제도하시는 분이므로, 미래世未來世 부처님은 미래세에 성도하여 미래세 중생들을 제도하실 분이니, 미래世未來世 부처님은 바로 우리 일체중생까지를 이룬 말이다. 일체중생이 미래세 언제인가는 불佛을 이루고, 각각各各이 당世當世의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불이란 깨달음을 이루었거나 이를 모든 분을 이르는 말이다.

예경禮敬은 몸과 말로써 예의禮儀를 다하고 마음으로 공경恭敬을 다하는 태도態度를 항상 동시에 실천實踐하는 행위行爲이다. 예경제불은 깨달음을 이루었거나 이를 모든 분에 대하여 몸과 말로써 예의를 다하고 마음으로 공경을 다하는 태도를 항상 동시에 실천하는 행위行爲이다. 보현보살의 경지境地에서는 '구현具現된 가치價値'와 '구현될 가치'가 동일한 가치로 만난다. 우리가 성취成就해야 할 경지境地이다.

2) 칭찬여래稱讚如來: 여래如來는 진여본성眞如本性을 말한다. 일체 제불一切諸佛의 진여본성眞如本性和 우리들의 진여본성眞如本性 같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칭찬여래稱讚如來는 우리들의 진여본성의 성덕性德까지를 칭찬하는 행원行願이다. 이는 곧 우리의 가치價値와 삶의 목적지目的地를 보여 주고 있다.

3) 광수공양廣修供養: 그 종류가 무량하겠지만 간략히 7가지만 든다.

(1) 여설수행공양如說修行供養이니 일체의 공양구供養具로 공양을 하되 부처님이 설하여 주신대로 관행觀行을 일으키며 행하는 공양이다.

(2) 이익중생공양利益衆生供養이니 중생을 도와 이익利益을 얻게 하는 넓은 의미意味의 공양이다.

(3) 섭수중생공양攝受衆生供養

있는 공양이다.

(4) 대중생고공양代衆生苦供養이니 중생이 받을 죄나 괴로움을 대신 받으려는 행行과 원願의 공양이다.

(5) 근수선근공양勤修善根供養이니 일체의 선근善根을 열심히 최선最善을 다해 닦는 공양이다. 선근에는 세간선근世間善根과 출세간선근出世間善根이 있다.

(6) 불사보살업공양不捨菩薩業供養이니 업業은 사업事業이고 보살의 사업은 교화중생教化衆生이다. 중생을 교화하는 사업을 저버리지 않는 공양이다.

(7) 불리보리심공양不離菩提心供養이니 일상생활日常生活 가운데 사람이나 사건事件 또는 사물事物을 대對할 때 고도高度의 경각심警覺心과 미혹迷惑치 않은 상태를 보호保護, 유지維持하는 것이 보리심菩提心을 여의지 않는 수행공양이다.

등平等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닦는 보시를 공양이라 하고, 이런 종류의 마음이 없으면 보시라 한다. 보시로 얻는 복보福報는 작고, 공양으로 얻는 복보는 크다. 왜냐하면 보시하는 심량心量은 작고, 공양하는 심량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복보福報는 심량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하니 심량이 크면 복보도 크다.

4) 참제업장懺除業障: 업業은 보리菩提와 실제實際와 중생衆生을 향하는 행원行願을 장애障礙한다. 그 업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야 하고, 알면 반드시 고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짓지 않는 것이 업장을 진실로 참회하고 없애는 것이다.

화엄華嚴에 이르기를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비롯함이 없는 겁劫으로부터 그 이후로 탐진치貪嗔癡로 말미암아 신구의身口意를 발동發動하여 무수한 악

질투嫉妬는 구생번뇌俱生煩惱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 없앨 수 없다. 보현보살은 우리들에게 수희공덕을 가르쳐서 무시겁無始劫 이래以來의 질투를 뿌리채 뽑아 버리게 한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 따라 기뻐한다. 그들은 큰 공덕을 얻고, 우리도 또한 똑같은 만큼의 큰 공덕을 얻는다.

이니 중생을 섭수攝收하여 주는 공양으로, 불법佛法을 소개紹介하여 주고 그들의 수행修行을 지도指導하여 주며 이끌어 주고 함께 생활生活하면서 수행하는 등의 매우 구체적具體的이고도 친밀감親密感이

대승보살大乘菩薩의 6바라밀 가운데 첫째가 보시布施이고, 보현보살이 행하는 보시는 특별히 공양이라 불린다. 보현보살이 보시를 행하는 마음은 진실眞實한 정성精誠과 청정淸淨함과 광대廣大함과 평

업惡業을 지은 것이 무량무변無量無邊하다” 하였으니 이것은 보현보살 자기自己가 또 다른 자기自己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저 보살도 오히려 이와 같이 참회懺悔하는데 하물며 우리 중생들이 하지 않을 수



보현십원普賢十願 속에 이 수희공덕이란 조목이 있을 수 없다. 질투嫉妬는 구생번뇌俱生煩惱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 없앨 수 없다.

보현보살은 우리들에게 수희공덕을 가르쳐서 무시겁無始劫 이래以來의 질투를 뿌리채 뽑아 버리게 한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 따라 기뻐한다. 그들은 당연히 큰 공덕을 얻고, 우리도 또한 똑같은 만큼의 큰 공덕을 얻는다.

6) 청전법륜請轉法輪:

전법륜轉法輪은 설법說法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청전법륜請轉法輪은 법사대덕法師大德께 경經을 강론講論하고 법法을 설說하여 주시기를 청請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세상世上에 계시실 때는 부처님께 경을 강론하고 법을 설하며 우리들을 교도教導하여 주시기를 청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미혹을 깨치고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는 수행과 깨달음이 있는 법사대덕에게 우리들을 위하여 경을 강론하고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7) 청불주세請佛住世: 범부凡夫는 결국 범부일 뿐이니, 가르침을 받

으면 얻은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는 듯하다가, 이틀 정도만 지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경을 강론하고 법을 설하여 주더라도 한번 만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반드시 선지식善知識을 모셔 놓고 매일 매일 우리들을 교화教化하여 주시기를 청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매일 매일 불법의 훈습薰習을 받아 시간이 오래 오래 지나면, 부지불각에 깨달아 들어가게 된다.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실 때는 부처님께 세상에 오래 주住하여 주시기를 청한다. 현재 비록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 선지식善知識이 세상에 머물고 있으니, 우리들은 반드시 그분들께 권勸하여 열반涅槃에 드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불보살諸佛菩薩이 세상에 주하는 것은 법연法緣과 관계關係가 있다. 법연이 있으면 그분들은 출현出現하시고, 연緣이 다하면 그분들은 떠나가신다. 제불보살을 따라 배워서 가르침 그대로를 받들어 진정으로 행할 수 있다면, 비로소 그분들을 세상에 주住하시게 할 수 있다. 정성스럽게 따라 배우지 않으면, 법연을 따라 떠나가신다. 청전법륜請轉法輪과 청불주세請佛住世는 보기엔 간단하지만 실제實際로는 쉽지 않다.

8) 상수불학常隨佛學: 보현보살은 등각보살等覺菩薩인데도 우리들에게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라고

있겠는가.

5) 수희공덕隨喜功德: 수희공덕은 질투嫉妬라는 병病을 대치對治한다. 이 조목條目은 법신보살法身菩薩에게 특별히 제시提示한 것이니 질투가 작은 병이거나 가벼운 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애하거나 파괴破壞하게 된다. 세간인世間人만이 이런 깊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佛法을 배우는 승려僧侶도 면하지 못하고, 보살菩薩도 면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수승殊勝한 장점長點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이 불편해진다.

만일 보살에게 이런 병이 없다면



권한다. 처음 발심發心한 때부터 열반涅槃에 드실 때까지의 모든 모습을 따라 배우라고 한다. 보현보살은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비로자나불을 따라 배우고 나아가서 시방여래를 따라 배우라고 권한다.

비로자나불은 화엄경華嚴經의 주불主佛이고 보신불報身佛이며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은 응화신불應化身佛이니 바로 비로자나불의 응화신이다. 부처님의 수증修證은 이미 구경원만究竟圓滿한 경지境地에 도달해 계시니, 우리들은 부처님을 모범模範으로 삼아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상수불학常隨佛學이 바로 회향보리回向菩提이다.

9) 향순중생恒順衆生: 보현보살은 갖가지로 다른 중생들을 완전完全하게 수순隨順하기를 우리에게 요구要求한다. 어떻게 수순하는가. 반드시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참을 수 없다면 수순할 수 없다. 중생을 수순할 수 있으면 중생들이 기뻐한다.

보현보살이 이르기를 “보살菩薩이 만약 중생衆生을 수순隨順할 수 있다면, 제불諸佛을 수순隨順하고 공양供養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

으니 예경제불禮敬諸佛의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수순하라는 것이다. 향순중생恒順衆生이 바로 회향중생回向衆生이다.

10) 보개회향普皆廻向: 이것은 회향법계回向法界이다. 예경제불로부터 향순중생까지의 모든 공덕을 완전하게 회향하여서 마음에 터럭만큼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공덕을 성취한 후 완전한 회향을 통해 심량心量을 무한無限하게 열고 진실로 청정한 마음을 얻어 법계法界와 하나가 된다. 공덕功德은 회향回向할수록 더 커진다.

보현십원普賢十願을 우리의 일상日常에 맞추어 간단簡單하게 정리해 보았다.

본래 너무나도 위대偉大한 가르침이기에 평이平易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십종十種의 광대廣大한 행원行願은 보현普賢보살이 일체보살一切菩薩들로 하여금 여래의 무량無量한 공덕功德을 성취成就하게 하려고 닦기를 권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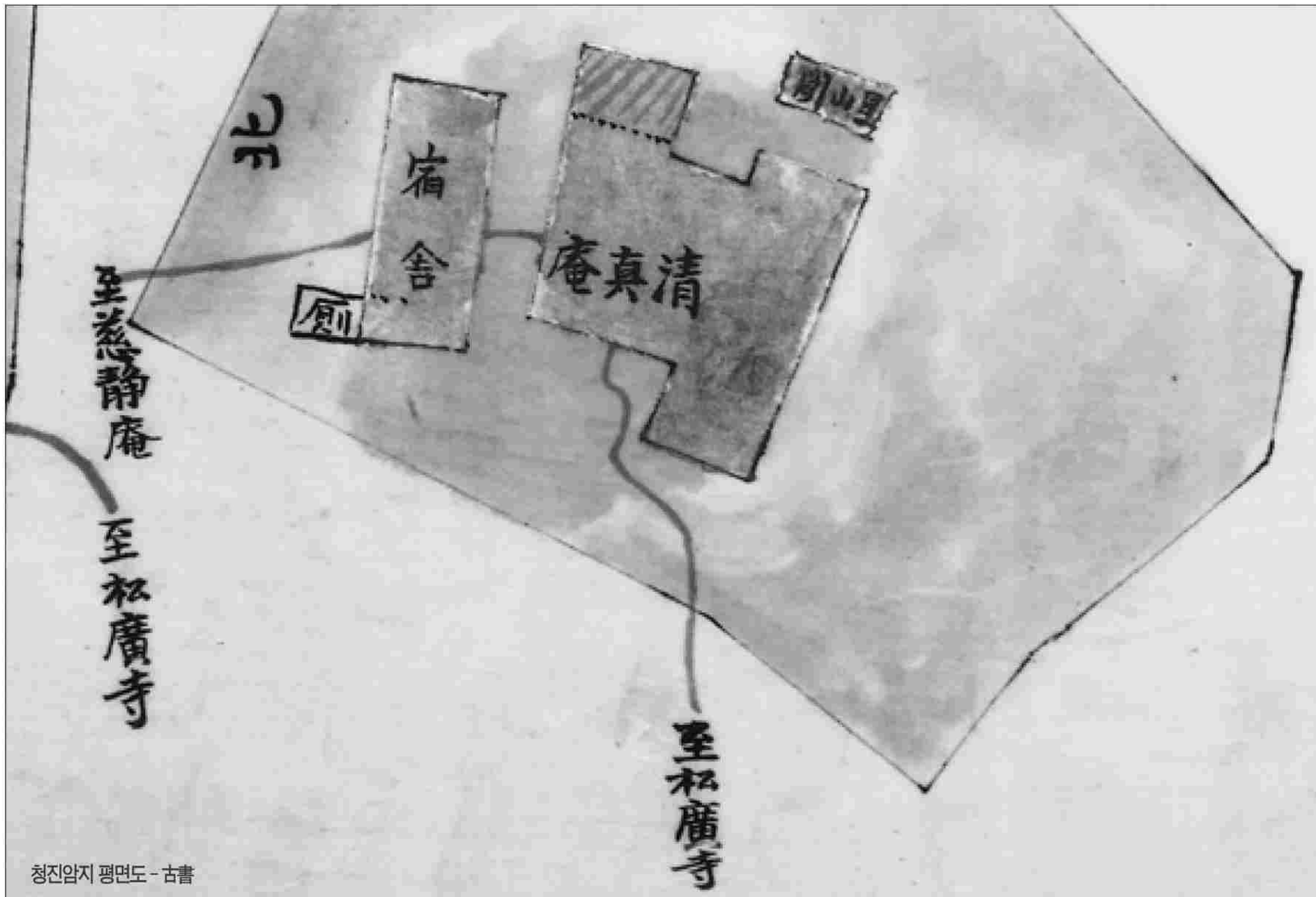
열 가지 행원은 서로가 일체를 포함包含하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행원行願을 성취하더라도 그 결과結果는 그대로 열 가지를 성취하게 된다고 한다.

위에 정리整理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독송을 한다면 열 가지 행원의 상호간相互間的 포섭관계包攝關係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 별행소초別行疏 에 있다. **定慧社**

송광사 산내암지山內庵址와 국사탑國師塔

1. 청진암지淸眞庵址



청진암지 평면도 - 古書

조계총림 송광사는 고려중엽 선교禪敎가 대립하고 교단의 황폐가 극심하던 시기에 여법如法한 수행참법修行參法을 주창하며 정혜定慧수행을 본분사로 하는 수행자의 결집을 도모하여 괘목할 만한 조계선풍을 일으킨 보조국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 후 15국사가 배출이 되면서 명실상부한 한국선불교의 심장부라 할 승보종찰의 가풍이 뿌리내렸다.

그런데 근래에 무게중심을 잃은 듯한 한국불교의 청정수행가풍을 다시 일으켜 세울 눈 밝은 수행자들이 1200년 전의 보조정신을 돌이켜보고 목우가풍을 살펴보는 가운데 새로운 발심과 용맹정진의 계기를 삼고자 천년역사의 현장을 순례하고 이번호부터 '정혜사' 지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신라 혜린선사 개창 이후부터 보조국사 대창大創 이전까지는 사문대중이 30~40명 정도였는데, 보조스님 당시에는 500여 명이 상주하였고 6세 원감국사 때에 이르러서는 수천 명에 달하였다. 본원本院뿐만 아니라 각 부속암자에도 많은 대중이 상주하여 수행가풍을 정착하고 조계선을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원 주변에 위치하는 산내암지들은 각기 다양한 기능으로 본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12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승보종찰 송광사에는 16암자가 있었다.

현존하는 광원암, 천자암, 감로암, 부도암, 자정암(불일암), 판와암(인월암) 외에 보조암, 은적암, 묘적암, 청진암, 조계암, 실상암, 상선암 등은 터만 남아 있



청진암지 옹벽



청진암지 샘



청진국사 적조탑

고 북암, 상염불암, 하염불암은 이름만 전해지고 있다.

또한 산내의 현존 국사부도는 보조, 진각, 천진, 원감, 자정, 자각, 고봉국사 등 7기이며, 대원사에 원오국사, 불갑사에 각진국사의 부도가 남아있다.

이번 기획연재 1회에 청진국사의 유적인 청진암지와 청진국사 적조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옛 청진암은 위 평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본당 1채와 성산각星山閣, 숙식요사 1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독산獨産암자로서 원대중이 자체적으로 숙식하고 수행하는 곳으로 20~30명 정도의 대중이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 숙식요사를 따로 두고 본당에서 활발한 강론강의와 예불의식 집전이 이뤄졌고, 아미타탱화·신중탱화·지장탱화·산신탱화 등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 독립된 수행도량으로써 염불수행도 병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규모나 열기가 본사 못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미타후불탱화에서는 중앙 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 관음보살·대세지보살이 협시하고 그 뒤로 성중이 배치하는 형식과 달리 청진암의 아미타후불탱화에서는 중앙상부에 아미타불이 정좌해 있고 그 전방 아래에 백의관음보살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장보살을 좌측에 배치시켜 그 위상을 높이는 구도를 보여준다. 이로써 보조국사의 회통불교사상에 따라 조계선과 정토선이 공존했던 조계가풍 속에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관음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지장신앙이 부상浮上하는 신앙흐름을 청진암 아미타후불탱화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외의 협시보살 다섯 분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어 그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으며, 지장탱화까지 따로 조성된 것은 청진암이

독립된 도량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성산각에 모셔졌던 산신탱화는 풍채 좋고 안은 한 모습의 산신과 암전한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데 누구든 한 번 마주하면 작은 소망이라도 빌었음직하다.

천년을 지켜온 이 곳 청진암지에는 6.25전란 이후 거의 폐허가 되어 공터만 남아 남은 주춧돌이나 기왓장 더미, 집기 조각들이 암자의 흔적을 알려주고 있다. 옹벽의 호박돌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도 견고한 벽을 버텨 세워 있으며, 장구한 세월동안 솟아오르는 샘물은 그 청량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도 낮설게 찾아오는 길손들을 묵연히 반기고 있다.

청진암지에서 남서쪽으로 능선을 타고 가면 바로 청진국사 적조탑이 나온다. 1252년(고려 고종39년) 청진국사 입적 후 건립된 것으로 돌기단에 서린 세월의 풍파를 느낄 수 있다. 도굴꾼에 의해 도괴되는 일도 있었으나 이후 범흥 화상에 의해 복원되었다. 단아하면서도 깊은 선기禪氣를 품은 자태에서 문득 고인古人의 사자후를 직감해볼만 하다.

청진국사는 16국사 중 제 3세로서 보조, 진각국사의 선풍을 이은 조계선의 종장이셨다. 보조국사가 조계산 수선사의 문을 연 후, 2세 진각국사에 의해 총림으로서 튼튼한 반석에 오르게 되고 이후 청진국사가 3대 방장에 오르게 된다.

스님의 휘는 몽여夢如이고 자는 소융小融이며 시호는 청진국사淸眞國師, 탑액塔額은 적조지탑寂照之塔이라고 나라에서 하사하였다. 스님의 비문이 남아있지 않아 스님의 행적을 자세히 알 길이 없지만 고종 39년 임자년 8월에 입멸하시고 수선사나 청진암에서 입적하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문선 51권의 기록을 보면, 당대 사대부로 문명(文明)을 날린 백운거사(白雲居士) 이규보(李奎報)와 돈독한 우의를 나누는 서간문을 통해 스님의 높은 도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열적(列蹟)을 종합해 보면 국사는 당시의 대법왕(大法王)으로서 능히 국왕(國王)대신(大臣)을 열복시켰으며 또는 수선사(守仙寺)·정혜사(正惠寺) 등 명람(名藍)에 주지(住持)하여 선풍을 크게 떨쳤으며 2세 진각국사(眞覺國師)의 <선문염송집>(仙門念誦集)을 보간(補刊)하셨다.

청진암지(淸眞庵址) 연혁

청진국사(1234~1252)때 초창 및 입적 후 청진암 명명(보조국사, 터 잡음)
 1589(선조 22년) 삼창(三創)
 1793(정조 17년) 봄. 공루 중수(화주 致弘, 별좌 裨玩 등)
 1799(정조 23년) 봄. 여름. 공루 중수(화주 奉衍, 별좌 悅閑, 도감 允修 등)
 1850(철종 1년) 枕淵章宣(1824. 1. 5.~1907. 5. 8.) 강석.
 1857(철종 8년) 3. 25. 申時 星山閣(동쪽)상량. 창건
 1858(철종 9년) 5. 산신탕화(함풍 8), 관음전 보관하던 것을 박물관으로 이관. 증사 心杼, 화주 贊璟(부휴 11세), 시주 處眞, 금어 道詢, 기포시주 曹成謨 등
 1860년대(철종, 고종) 連峰鳳麟(1833~1912. 1. 5) 주석
 1870(고종 7년) 大鵬智藪(1841~1923. 7. 9.)법인 받음(枕淵). 은사 시봉(~1875)
 1878(고종 15년) 布雨幸性(1850.12. 8.~1884.12. 7.)건당(盈虛 법인).
 1879(고종 16년) 12. 14. 후불탱화(광서5), (별교 포교당 → 박물관) 및 신중탱화 (감로암 → 박물관) 증사 優曇洪基(1822~1881, 부휴 12세), 총섭(주지) 君成, 금어 雲波就善·天禧·敏禹
 1890(고종 27년) 봄. 混溟誠昊(1858. 9.17.~?) 주석
 1895(고종 32년) 2.~1896(고종 33년) 5. 錦溟寶鼎(1861~1930) 講(학인 20여명)
 1897(고종 34년) 9. 중건 화문(금명보정 찬)
 1898(고종 35년) 1. 산신탕화(광무 2) (별교포교당 → 박물관). 증명 錦溟添華, 금어 文炯
 1900(고종 37년) 2. 지장탱화(광무4) 은적암 조성, 현재 원각사. 증명 月和赫演, 錦溟添華(화주겸), 금어 香湖妙英·蓮坡和印 외 5명 편수
 1910년대. 浩鵬振弘(1863. 4. 8.~?) 保任
 1919. 6.10. 四創. 주지 雪月(1868~1938), 주관 春盛, 목수 徐德志, 금명보정 誌
 1925. 4. 鏡湖妙成 주석
 1926. 5. 雨淵 주석
 1927. 10. 22. 성산각 및 東翼室 樞철.
 1936. 6. 14. 공루 樞철. 북쪽 通門 신축
 1938. 봄. 樞철하여 道成堂 중건(2. 5~4. 28)

아미타후불탱화
(1880년)



지장십왕탱화
(1879년)



신중탱화
(1879년)



산신탕화
(1898년)



* 이번 호부터 연재하기로 한 '송광사의 벽화'는 편집사정으로 인하여 '송광사 산내암지와 국사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편집자주>

소중한 인연

혜산慧山 | 치문

초등학교 1학년으로 기억합니다. 유독 잠이 오지 않아 TV를 보면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모든 방송이 종료되고 공영방송 한군데서만 전파를 보내고 있는데 불교영화였습니다. 그때 내가 이해하기엔 난해한 내용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의 제목이나 내용, 주인공도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한 장면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어느 스님이 누더기에 걸망을 메고 눈을 맞으며 산길을 걷어가는 뒷모습 이었는데 아직도 그 영상이 선합니다. 하얀 눈길에서 초연히 눈을 맞으며 걷어가는 스님의 뒷모습! 왜 그런지 모르게 그때 저의 마음을 한참 끌어 당겼습니다. 지금은 그 눈길을 걷는 스님처럼 출가사문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 그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은사스님과 차담을 나누던 중 스님께서서는 제가 전자에도 스님이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득 눈길을 걷던 그 스님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 속의 스님,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초등학생, 지금 승복을 입고 송광사에서 공부하는 학인, 모두가

제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서 부처님을 보며 감사의 회향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무지한 저에게 금생에도 출가사문의 길을 가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세생생에 출가사문의 인연을 지어 결국엔 궁극의 진리를 밝히고 지금까지 맺어온 수많은 인연에게 보답할 것을 서원합니다. 定慧社



참회존자

유신(旣信) | 치문

송광사는 일 년 내내 발우공양을 하기 때문에 공양에 관한 산철·안거·방학이 다를 게 없었다. 강원에 오기 전에 송광사의 발우공양에 대해 무척 호기심이 있었다. 그래서 습의시간에도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으려 애썼고 거기에다 큰방(지전)소임이었기 때문에 훨씬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봄 산철에는 모두가 처음 하는 소임이라 긴장하고 신경을 써서 그런지 핑크나는 일이 드물었다. 별탈 없이 산철이 지나고 안거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지전소임을 보게 되었다. 더구나 처음부터 부방을 맡게 되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신경 쓴 만큼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두 번 실수를 하고 다음 부방 소임자에게 소임을 넘겼다. 그런데 또 며칠 후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입승 스님과 대교반장 스님의 발우를 내려놓지 않아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공양이 끝나는 죽비 소리와 함께 찰중스님의 지전소임 집합이 있는 후 곧바로 삼 일간 두 시간씩 참회지시가 내려졌다. 하필이면 이때 지전장 스님은 외출 중이었고 대신해서 임시 지전장 스님이 오셨는데 한 시간 소임에 삼일

참회를 받았으니 스님을 뵈면 면목이 없었다. 지전장 스님이 저녁에 보고를 받은 후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으셨고 모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다. 저녁공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참회를 하게 되었다. 첫날은 그럭저럭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둘째 날 참회가 끝날 때쯤 좋지 않았던 허리에 통증이 심해지는데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연이어 대중 참회까지 하게 되었다. 척추상태가 시원치 않은 나로선 무척 힘겨운 시간들이었다. 문득 행자시절이 떠올랐다. 말사에서는 처음 삭발염의하면 하루 천배씩 일주일간 참회하는 전통이 있었다. 대부분 천 배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 아홉시 이후에나 울력이 끝나는 터라 절을 해보지 않은 나로선 쉽지 않았고 첫날은 두 시간 삼십 분이나 걸렸다. 날이 갈수록 점차 절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무사히 일주일을 채웠는데, 얼마 후 은사스님의 일주일 참회지시가 또 떨어졌고 법랍 이십년이 넘는 사형을 비롯하여 처사들까지 열여덟 명이 법당에서 참회를 하였는데 신도들은 무슨 일인가 하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역력했다. 나의 출가수행이 이렇게 참회로 시작되었는데, 송광사 강원엔 입방해서 탄탄한 이력을 쌓고 있는 것이다. 도반스님들은 절하는 것보다 발표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하지만 몸이 좋지 못한 이들은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육체가 힘들다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일 배를 하더라도 진정 기도하는 마음, 진실로 참회하는 마음, 하심하는 마음, 탁마하는 마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스스로의 공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해볼 일이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안거를 무사히 마치기 바란다. **定慧社**



행자생활

지운(指雲) | 치문

송광사 치문반 방부를 들일 때만 해도 싸늘한 겨울 날씨였는데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한여름의 문턱이다. 서툴기만 한 강원생활에 예불·간경·공양·울력 등 빠듯한 생활일과이지만 모난 돌이 정맞듯이 점차 탁마와 갈마 되어서 차츰차츰 깎아지고 느끼며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다.

나의 행자시절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더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본다.

출가하여 세 군데의 절에서 행자시절을 보냈다. 첫 번째 행자를 시작한 절은 불사가 한참인 곳이었는데, 아침 예불 이외의 시간은 절에서 1km나 떨어진 계곡 개울가에서 지게에다 돌을 지고 절까지 나르는 일이 전부였다. 사흘이 멀다 하고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터지곤 하였다. 그래도 일대사를 마치려고 출가하지 않았던가! 다짐하며 꼭 참고 부지런히 돌을 날랐다. 거의 불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까지 지게질만 하였다. 그러다 불사가 끝날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른 스님의 무모한 질책이 이어졌고 다시 옹기 행자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절을 떠나게 되었다. 두 번째 합천에서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들어가자마자 3000배를 시키더니 일주일간 벽만 바라보고 앉고, 묵언·차수·안행 등 하루하루가 속가 1년을 지나가는 것처럼 힘든 시기였다. 그래도 그전보다 옹기 행자생활을 한다 싶었고, 여러 명의 행자가 같이 있었던 터라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했던 것 같다. 행자생활 7개월을 마치고 본사행자 교육을 받기 위해 은사 결정을 앞두고 나름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의 은사스님과 인연이 있었던지 행자교육을 시작하는 날 그 절에서 N사로 떠나게 되었다. 세 번째 행자생활을 시작한 곳은 지금의 은사스님이 계신 부산구덕운동장 뒷산에 있는 내원정사라는 절이다. 내원정사는 천도재나 제사가 많은 관계로 새벽에 눈뜨자마자 은사스님 시봉, 공양 준비, 제사나 천도재 준비·정리 등으로 힘든 하루하루 생활을 보냈다. 바쁜 행자기간 중에서도 그나마 오후에는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다행스러웠다. 지금도 첫 번째 지게꾼 행자 생활과 두 번째 특수부대 행자생활과 세 번째 전천후 행자생활의 여파로 몸이 비가 오면 정확하게 신호를 해준다. 아이구 허리야! 치문반 도반 스님들은 날씨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나에게 물어보곤 한다. 뒤돌아보면 정말 힘든 시기였다. 발우 공양시 물김치를 놓지 않아서 상행자로부터 식판에 머리를 맞아

머리가 깨지기도 했고, 강원 대방 1시간 무릎공사에 덮어씌운 이빨이 잇몸을 눌러 신경을 다치는 바람에 이빨을 새로이 해 넣기도 했고, 합장 자세로 참회 1시간에 손목이 나가서 붕대 신세를 지기도 했고, 정상 산악인이 2시간 걸리는 산행을 55분 안에 주파해야 하는 유격 훈련 같은 일도 한 달에 두세 번 있었고, 새벽예불 후 6분 만에 108배 하기도 무척 곤혹스러웠다. 업장이 두터웠던지 나는 다른 스님들보다 어렵게 스님이 되었다. 행자시절 16개월 만에 어렵게 스님이 된 만큼 스님이 되기가 어려우니 옹기 수행자가 되길 바라며 나의 행자생활을 되짚어 보며 신심을 내 본다. 定慧社



새로운 발견

지월智月 | 시집

새벽간경을 끝내고 나면 마치 시골 농부가 새벽 일찍 한 무더기 일감을 끝내고나서 짧은 단잠이라도 마저 자려는 듯, 지대방 문턱을 곧잘 넘어서곤 했다. 그러나 최근엔 새로운 놀이가 생겼다.

10~20분의 짧은 시간 동안 대웅전 마당에 나가 고요한 어둠을 뚫고 나온 가람의 모습들, 전각의 빛깔이며 싱그러운 나무와 꽃을 보고 흠을 났으면서 여명의 하늘 사이로 지저귀는 새소리와 더불어 큰 기지개를 펴는 것이다.

이것이 단지 감상적인 여유일까. 큰 집에 들어온 이후 행자시절, 치문반 시절, 그동안 움츠리고 적응하기에 급급한 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찾곤 했던 순간들은 영화자막처럼 지나가고, 새벽마다 신선한 도량주위를 거닐며 문득 자화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10여 년 전쯤 서울 한 극장에서 관람한 적이 있는 '그랑 블루' 라는 개봉영화가 생각난다. 영화의 주인공은 세계최고의 잠수기록을 보유하고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며 매일 매일 깊은 바다 속으로 잠수해 들어가는 독특한 삶을 살아간다. 점차 낯설은 인간의 세속적 삶에 고뇌하던 그는 바다

깊숙한 곳에서 느끼던 고요와 평화를 향한 높은 의식세계와 교차하면서 끝내 이상세계를 향한 방향의 끝을 맺게 된다. 어두운 바닷가 자동화된 누심측정기구에 오른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인의 애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깊은 바닷가로 잠수해 들어간다. 한없이 넓고도 고요한 인간 한계의 어두운 곳에서 때마침 들도 없는 옛 친구인 돌고래의 우연한 마중을 맞게 되고, 바다 속 깊은 고요와 침묵을 확인하고서 마치 자유와 평화를 향한 지상과 연결된 마지막 단 하나의 생명 줄을 놓으며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움의 극치를 보여주듯 저 돌고래 곁으로 한없이 헤엄쳐 다가가며 영화는 끝을 맺는다. 이 영화에서 감동을 주는 것은 세속적·이성적·물리적 신체를 스스럼없이 포기하면서 보여준 자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자유를 향한 영광의 탈출이었다. 진정 대 자유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익숙해진 주변의 삶에 휩쓸려 내면의 참된 소리를 외면하고 살았다면 이젠 귀 기울여 본래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네 삶에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POWER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참 자유를 찾아 길을 떠나는가? **定慧社**



봉정암

보명普明 | 사집

내일이면 봄 산철을 해제하고
하안거 준비방학을 맞아
도반스님들과 함께 그 동안의 쌓인
피로를 풀겸 설악산 봉정암에
만행하기로 했다. 초행길이라
결망준비가 여간 설레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 종일 힘차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강원도의 높고 험한
산허리를 굽이굽이 돌아서 백담사
계곡으로 들어섰다. 매표소를 지나
한참을 달려서야 백담사에
도착했다. 평일에 날씨도 잔뜩
흐려서인지 관광객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계곡을 따라
4시간은 걸어야 봉정암에 도착할
수 있기에 우리는 서둘러 발길을
옮겼다. 부끄럼 없이 속살을
드러내고 계곡물을 속옷삼아
누워있는 수줍은 바위와 하늘 높이
솟은 괴암 절벽은 탄성을
자아낸다.

설악산 홍보용 책자에서나 보았던
풍경이 시야 위에서 내려와
발아래로 사라지기를 몇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없이 걷다보니 절
안내 표지가 보였다. 마지막
가파른 절벽을 기어서 오르는 노
보살님들의 힘겨운 발걸음과 함께
하며 드디어 절에 도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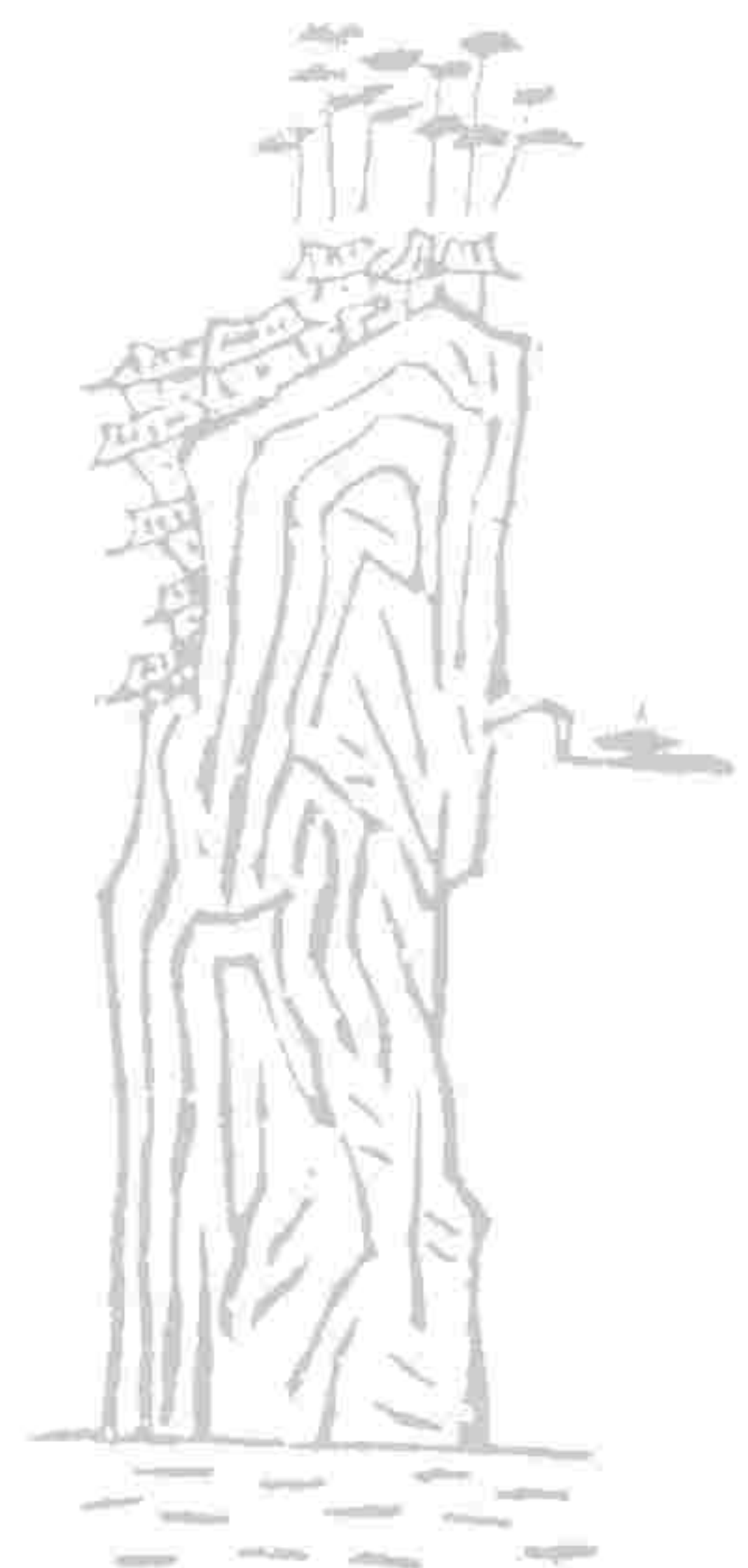
우선 법당에 참배하고 저녁공양을

했다. 절은 생각보다 도량이 넓고
가을 단풍철엔 수천 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놀라기도
했다. 또 객실이며 다실이며
도량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객스님들을 위한 배려도 느껴졌다.
서둘러 진신 사리탑에 올라
108배를 하고 나니 1400년 전에
지장율사께서 부처님 사리를 왜
이렇게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모셨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잠시 웅장한 주위 경관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암자를
통째로 삼킬 것 같은 바위는
위용을 자랑하고 발아래로 구름에
허리를 잘린 바위들은 허공에 편
석화처럼 아름답게 떠다니고 그
너머에 동해바다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낸다.

암자로 돌아와 저녁 예불을 모시고
다실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객스님 세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

철저한 계율로써 선정에 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10년 넘게
일종식으로 수행하신다는
선방스님과 스님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재물욕이라며 전국의 영험
있는 도량에서 기도를 다해
보았다는 조금은 거칠은 말과
행동이 초심자의 마음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그 속에 절제된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스님,
그리고 얼굴에 미소만 머금고
말없이 듣고만 계시는 비구니
스님. 이곳 봉정암의 풍경에 모든
경계를 놓아 버리고 오랜 도반인양
서로 덕담을 나누는 사이 부처님의

따뜻한 품속처럼 봉정암의
밤하늘은 그렇게 깊어갔다. 定慧社



벽송사·서암정사 조실 원응구한元應久間 스님



우리나라에서 웅장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리산 칠선계곡.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에 이르러서 만나게 되는 칠선계곡을 따라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 벽송 지엄 선사가 중창한 고찰 벽송사와 서쪽으로 600m지점에 서암정사로 발길이 이어진다. 6.25전란으로 황폐해진 천년고찰 벽송사를 재건하고 장엄한 산세를 배경으로 천연암석 조각 법당을 세운 원응스님은 전란으로 죽은 원혼들을 달래며 민족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발원으로 불사를 시작한 이래 10여 년에 걸쳐 화엄경 전문 60만자 금니사경을 원만 회향하셨다. 1945년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신 스님은 전 조계종 종정 성철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시다 1961년에 지리산에 들어가 40여 년간을 화두정진 하시며 불사, 사경수행을 겸수하셨다. 누구에도 불구하시고 맑은 미소 속에 수행자로서의 여유와 겸허함이 배어있었고 공부를 지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도 아끼지 않으셨다.

요즘 근황과 하루 일과는 어떠신지요.

‘이뵈고是甚’ 하나를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 후학들에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분명히 길이 있는 이것이 공부라고 할 수 있어. 요즘은 때로는 앓았다 피곤하면 눕곤해. 그러곤 이렇게 산중에 묻혀 사는데 특별한 일이 있겠나. 허허허.

출가 인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불심이 깊었던 아버님의 권유가 있었고, 세상의 글공부보다는 내면에 대한 공부, 참선이 참 매력적이었어. 세상공부는 번거롭고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이 공부에 뭔가 분명히 있고 목숨 걸고 해볼 만한 공부라는 확신이 있었지. 그래서 입산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비구 대처가 대립하고 있어서 한참 어수선할 때였지. 대부분 수좌들은 선방을 선호하였고 몇몇 수좌들이 주축이 되어서 대처승과 싸우고 있었지. 경학은 좀 소홀시 되던 때였고 또 사찰확보가 안된 상황이라 다분히 여러 면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이 많았어.

스님께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어른 스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신지요.

금룡사·해인사에서 성철스님 곁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성철스님이 한가한 때라 가까이 접할 일이 많았지. 좀 성질이 괴팍하시긴 했지만 내게는 참 인자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

그 분과의 인연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수행자로서 좋은 만남이었어.



스님께서 정진하시는 곳

벽송사에서 40여 년을 수행정진하고 계시는데, 벽송사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처음부터 목적하고 온 것은 아닌데, 6.25가 지난 지 얼마 안된 때라, 치안상황도 좋지 않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말이 아니었어. 더욱이 부산 선암사가 수좌들 활동의 중심부나 다름없었는데, 피난민들이 북적대는 동네라 주변이 어수선하고 남들과 시비하며 살게 뭐있나 하고 회의감이 있었어, 사중소임도 그랬고. 그래서 깊은 산중 조용한 터에서 오로지 화두정진만 하려고 이래저래 알아보다 찾아온 곳이 벽송사라.

처음 여기에 와서 보니 전쟁 중에 법당 빼고 다 타버렸고, 그나마 법당도 비가 오면 비가 철철 새고 했지. 그래서 불사를 하려고 하면 길도 없었기 때문에 기와를 저 밑에서부터 지고 와야 했었어. 도회지에서 신도들한테 손 벌리는 게 싫어서 산중으로 왔는데 불사한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구

먼. 그래서 벽송사에서 토굴삼아서암으로 내려왔지. 세월이 좀 지나면서 신도들이 발심해서 주변 큰 바위에 불상을 조성하자는 얘기가 나왔어. 또 6.25전란 여순사건 등으로 많은 희생을 치른 지역이라 아미타도량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그래서 인연을 기다리면서 굴범당부터 짓기 시작했어.

스님께서 10여 년 동안 화엄경금니사경을 발심한 계기는 어떤 것입니까.

불교의 인연법으로 보면 내가 그쪽에 맺어 놓은 선근이 있었던 거라. 서예에 대해선 취미가 조금 있었어. 그리고 노스님들 만나면 화엄경 사경은 지금 없어졌다 하고, 금강산 의령사에는 화엄경 사경 완본이 남아 있었다고 하시며, 우리나라 사경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수행의 방편으로 사경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런데 그 자료를 찾아보

공부라는 것은 항상 냉철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성심성의로 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수행이지. 마음이 남을 대하면 겸손하고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듯 생각을 항상 해야 오늘 하다가 내일 못하게 되더라도 그만치 값어치 있는 거 아닌가? 하루 지나면 하루에 한만큼 값있는 생활이 수행이지.

니까 완본 화엄경이 없어, 그래서 더욱더 이거는 한 번 해볼 만한 일이다 생각했지. 그래서 일과에서 틈틈이 하는 게 공부라 시간 나는 대로 사경을 시작했어.

수행방편으로서의 사경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후학들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경전 말씀을 잘 모르거든. 상당한 수행이 되어야 납득이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석으로 공부가 안될 때에는 발원도 하고 천배도 하고 그러거든.

참선은 술술 되지 않아서 그래서 팽개쳐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원을 세워서 기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 참선을 정성스럽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 참선이 안 되고 자꾸 몸부림 나면은 이것을 펴놓고 사경 하거든. 사경할 적에는 보통 행서체와는 달리 멋을 낼 수가 없고, 글자 한자 한자에 조심을 해야 하고, 틀리지 않게 정성을 담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음의 참선이라 할 수 있지. 선의 경지에서는 부처님이 나타나도 마음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으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더 간절하게 백가지 방편을 쓰게 되어 있어.

부처님 오면 부처님 멀리하고,

조사스님이 오면 조사스님을 멀리 하라는 옛 말씀도 있지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도 본분 참선 명상에는 어떠한 것도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한 거야. 옛날에 어떤 스님이 참선이 안 되니까 혼자 토굴에서 기도를 지극하게 하면서 마지를 올리려는데, 쌀이 없어 밥을 되 찌고 그랬는데, 지나가는 포수가 배고프다 밥 좀 달라 하니까, 부처님께 마지 좀 올리고 먹으라 했거든. 그런데 그 포수가 배고프니 그냥 달라 하거든, 그래서 안 된다 하니까 포수가 총 한 방을 쏘는데, 그 소리에 한 소식했다 하는 일화가 있어. 그래서 정성스레 공부에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백가지 방편이 있는 것이야.

근래 부쩍 대두되고 있는 수식관·위빠사나·밀교 등등 다양한 수행 방편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수행방편이 팔만사천가지나 되니까, 그중에서 무슨 길이 없겠나! 사람의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거든. 한 가지 길만 절대적이라 할 수 없는 거라.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길이 다 있어. 그런데 내 하나 가지고 가는 것도 옳게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남

의 것을 건성으로 듣고 추측으로 듣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 다 그런 이들이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놓은 것을 보면 나름대로 길이 있는 것이지. 나는 내 공부도 아직까지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데 여타의 수행방법 갖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 뭐 추측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공부라는 것은 냉철해야지 추측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불사에 남다른 원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후학들이 불사를 할 때 각별히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라는 것이 팔만사천가지 방편이 있는 거라. 불사도 수행 밖에 있는 일은 아니거든. 그러나 잘못하면 마사魔事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불사도 지성으로 해야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신도 돈을 어렵게 생각하고 신도들이 어쩔 땐 천원도 가지고 오고 만원도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돈이 많으면 흔히들 함부로 생각하기 쉽거든. 가난할 적에는 한 푼이라도 귀하게 생각하지만, 여유가 있으면 함부로 생각하기가 쉽듯이, 불사하는 사람도 시주가

주는 천원이라도 대수롭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만치 그 사람 마음이 무더진 거야. 항상 냉철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성심성의로 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수행이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불사가 공부 바깥에 일이겠느냐!

어떤 사람은 불사 하면은 '이거 뭐 중이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러거든. 그러나 '이런 거 하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 공부하는 마음이거든. 남의 것을 함부로 보지 않고 남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아는 것도 지혜지. 불사라는 것은 뭇대로 생각해서 불사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하면은 선지식에게 자문을 구하듯이, 올바르게 하기 위해선 이것도 먼저 해본 사람에게 자문을 받아야 하거든. 농사를 지을 때도 지나가던 사람한테도 병이 들었는데 무슨 약을 처야 되냐고 물어야 되듯이, 우리도 신심을 다해서 불사를 해나가면 그것이 공부거

든. 다른 게 공부가 아니야.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 재미를 붙여서 안주해버리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불사는 부득이 해서 하는 것이지 공부의 전체는 아니야.

시봉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요.

내가 우선적으로 먼저 술선수범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특별하게 일러주는 것은 없어. 일상 사日常事가 다 공부잖아. 또 나라고 완벽하지는 않으니깐 단점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피하게 될 거고, 나한테 좋은 점은 취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부지런히 공부해 나가는 것이지.

스님, 장시간에 걸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스님들한테 종교인의 자세란 거 그것이 아쉬워 새삼스런 소리겠

지만 마음이 남을 대하면 겸손하고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듯 생각을 항상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쉬워. 부처님 일이 오늘 하다가 내일 못하게 되더라도 그만치 값어치 있는 거 아닌가? 하루 지나면 하루에 한 만큼 값있는 생활이 수행이지. 그러니 마음을 변치 말고 항상 다듬어 가도록 해야 해.

세간의 일도 한 가지 성취하려면 힘이 드는데, 그래서 요사이 기업들도 많이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나 거기서 좌절해 버리면 그것은 실패한 사람이지만, 가다듬고 또 가다듬고 하면은 성취할 수 있거든. 부처님 공부는 세간의 사업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한 만큼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공부가 다 뜻이 있는 소리니 열심히 하라고. **定慧社**

취재 | 편집실



서암의 비로전



서암의 산신전·비로전 입구

경허선사의 각覺

글·그림 서림西林 | 치문



경허선사는 아홉 살에 시흥 청계사에 들어가 출가하였다.

23세 때 대중의 요청으로 동학사 강원 강단에 섰던 탁월한 강백이셨다.



은사스님을 뵈러 가시던 길에 우연히 폭우를 만나서 비를 피하시려다.....



참혹한 죽음의 현장을 만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무상이 빠르고 생사가
신속함을 느껴 그 길로 폐문좌선 하시게 되었다.

驢事未去 馬事到來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도래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바깥에서 소가 되어도
고삐 뚫을 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그때가 1879년
선사의 세납이 31세였다.

편입생 일기

설옹雪雄 | 사집

송광사 강원 사집반에 편입해 생활한지 석 달 남짓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반스님들과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오는 긴장감, 송광사 강원 특유의 바쁜 생활 등 여러 압박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이제 송광사 강원 대중으로서 생활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타 강원에서 치문을 나면서 나는 늘 강원의 부정적인 기능을 생각하며 생활했었다.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산출이 너무 적은 비효율적인 생활, 강원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의 열악함에 실망했고, 강원 학인들에 대해서도 그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속인의 기준에 빗대어 마땅치 않게 생각하곤 하였다. 항상 못난 사람이 불평이 많은 법이다. 그때 나의 생활은 엉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송광사 전통강원에 입방하고 나서는 강원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왜 송광사 강원이 최고의 전통강원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강원시설 등 외형적인 여건은 타 강원에 비해 좋은 것이 없지만, 면면히 이어온 송광사 나름의 전통이 있어 학인스님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어 가려 노력하는 학인 대중스님들의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사실 기왕에 강원을 옮기려거든 송광사 강원로 가서 생활하라는 은사스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까지 대며 다른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거부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다 결국 송광사에 와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너무 버거운 생활에 (타 강원에서 치문을 난 나에게는 거의 고행수준이었다.) 너무 힘이 들어 은사스님의 청을 끝까지 뿌리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짧은 생활이나마 송광사의 많은 대중스님들 속에서 부대끼며 생활해 나가는 것이 나에게 큰 공부인 것을 차츰 알게 되었고, 이제는 송광사 강원을 권해 주신 은사스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도반스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지며 이러한 도반들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후 누가 나에게 강원의 선택을 상담해 온다면 주저하지 않고 송광사 강원을 권할 것이다. 부족한 점이 많은 나를 대중의 일원으로 섭수해주신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수행하는 도반스님들께 나 역시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으로 고마움에 보답할 것을 다짐해 본다. **定慧社**

방부 들입니다

연공鍊空 | 사집

내가 처음 출가하여 행자생활을 했던 곳. 송광사!

1년 만에 다시 와보니 변한 것들은 없었지만 왠지 낯설기만 했다. 청량각淸涼閣을 지나 산사로 들어서고 있을 때 그 혼한 돌맹이까지 화려하지도 천박하지도 않은 1년 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절에 점점 가까워지자 간간이 들리는 스님들 간경소리 그리고 느릿느릿 걷는 스님의 뒷모습들, 소리 없이 흐르는 시냇물, 빙글빙글 철없이 돌고 있는 어린 물고기들, 그리고 푸른 이끼들은 내가 행자 때 본 모습대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많은 매력이 배어있었다.

더욱이 부처가 되려고 출가 수행하는 구도자들이 모여 사는 이곳! 가사 수하고 사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역대 많은 큰스님들께서 공부하셨던 그 송광사에 학인이 되려고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멀리서 나에게로 다가오는 지객스님. 간단한 인사와 안내를 마치고 3일간의 방부대기에 들어갔다. 예불·공양시간 외에는 이곳저곳 돌아보며 분위기를 살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습의도 받으며 3일을 보냈다.

드디어 방부 들이는 날!

어느새 큰방 앞에 서서 방부인사 준비하는 가운데 긴장감이 돌았다. 잠시 큰방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다. 발우가 놓여 있을 터이고 정렬된 가사장삼과 많은 스님들,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었다. 앞으로 그 안의 주인공으로 몇 년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 엷은 설렘이 일어났다. 이윽고 입방하기로 한 스님들과 나란히 큰방에 들어가서는 대중스님들께 3배를 올렸다. 정식으로 송광사 학인으로 인정받고 그 일원이 된 역사적인 날이었다.

스님이 무엇을 할지도 모르면서 출가해서 송광사 강원까지 오게 된 나는 오늘 송광사 강원의 정식 학인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두 손 모아 해본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定慧社



특별취재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을 다녀와서

<http://www.ine21.com>

송광사 강원 학인스님들이 월2회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법회 및 위로활동을 하고 있다. 대교반 스님들이 전통으로 이어온 원외특별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강원학인이 사회복지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라 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활동과 시설을 살펴보면서 수행자로서의 삶과 수행 안으로 소외된 사회계층을 어떻게 섬수할 수 있는지, 뒤늦게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불교계의 역할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편집실에서 찾아간 복지시설은 전남 순천시 외곽에 자리한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이다. 부랑인, 정신지체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고 안팎으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으며 원생들이 재활하고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와 노력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다양한 육체적·정신적 재활·적응 치료 프로그램, 각종 취미활동 및 여가지도서비스,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재활서비스, 연 월중 정기행사 프로그램, 생활지도서비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그 종류와 전문성을 뛰어넘어 모든 직원이 내 가족 돌보듯 지극정성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투명한 인력·재원관리로 서로 신뢰하고 의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이 곳 원장님은 언뜻 평범한 전업주부처럼 보였으나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사이 자신감과 능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원생들에 대한 자애심이 가득한 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루 원내시설과 운영체계를 살펴보는 동안 20여 년간 흘린 땀이 여간한 게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 들어 법회 준비가 시작되었다. 2시부터 법회가 열리지만 이리저리 준비하는 분들의 일손이 바빠졌다. 법회 시작 바로 전에는 노래 자랑시간을 가져 손뼉 치며 웃고



인애원 법회 장면

함께 즐기는 가운데 어느새 한껏 분위기가 밝아졌다. 곧바로 법사스님의 집전에 따라 삼귀의, 7정례, 관음정근, 사홍서원 등의 간결하면서도 정성이 깃든 법회가 진행되었다. 좀 딱딱하게 느껴질 예불의식인데도 서로 정중히 절하고 서툰 발음으로도 큰소리로 염불하는 동안 모두가 부처님 앞에 선 같은 불제자가 되었다. 잠시 입정시간, 모두 부처가 될 인연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한 것이라면 어서 모두 재활해서 부처님 공부를 원 없이 하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일었다.

마지막 순서로 모두가 참여하는 낱말퀴즈가 있었다. 엉뚱한 답변이 자주 나왔지만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풀어버릴 때면 준비한 법사스님이나 참관하는 스님, 지도교사들도 깜짝 놀라기도 했다. 때때로 장애증세가 있더라도 내재된 감성이나 지성이 정상인 못지 않음을 보고 이전에 쉽게 생각했던 편견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일체 상에 온갖 관념과 선입견으로 접근하는 습으로 인해 실상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다.

법사스님과 모여앉아 나눈 말씀 중에도 평이한 내용인 듯하지만 그 이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음은 원장님과의 인터뷰한 내용과 법사스님의 말씀을 적어본다.

인애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십시오.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인애원이고요, 법인인가 이후에 산하에 두 개

시설이 있어요. 하나는 성인보호시설로서의 인애원과 정신요양시설로서의 인선요양원이 있습니다.

인애원은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분 혹은 가족들이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곳이고요, 인선요양원은 정신과 치료와 함께 사회적인 기능과 적응이 필요한 분들이 재활치료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복지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사업에 몸담게 된 계기나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지요.

(웃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는 제가 원불교와 인연을 맺으면서 구체적인 활동으로 나타났고요, 지금까지 한 20여년 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기본적으로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저한테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송광사 학인스님들이 한 달에 두 번 방문해서 법회를 여는데, 종교 활동에 대하여 느끼신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희 인애원에서는 다양한 종교 활동이 있습니다.

설립초기 때부터 약 16년 간 기독교에서 예배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천주교 레지오 활동, 원불교에서 천도재와 관련된 행사가 있고요, 특히 송광사 스님들과 인연이 돼서 불교법회가 시작한 것이 4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런 종교 활동들을 저희들은 하나의 프로그램 개념으로 도입을 시켜서 [심성계발]

저희들 입장에서 매주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한 달에 두 번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식구들에게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적 분위기에 맞는 성향의 식구가 있는 것 같고요, 법회 동안 염불소리, 목탁소리, 법문 등을 통해 표정이나 생활 모습에 일종의 치료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긍정적이죠.

이라는 면에 목적과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매주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한 달에 두 번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식구들에게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적 분위기에 맞는 성향의 식구가 있는 것 같고요, 법회 동안 염불소리 목탁소리 법문 등을 통해 표정이나 생활 모습에 일종의 치료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긍정적이죠.

그렇다면 원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복지운동가나 종교계 특히 불교계의 복지활동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거의 10대 연령에서 발병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청년기가 정신건강 면에서 관리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회적으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나 정책에 앞서서 종교계 지도자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요.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 이미 사후치료적인 접근이거든요. 그에 반해 종교활동은 아주 적극적인 예방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분들이 종교활동을 떠나서 범사회적인 활동으로 프로그램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신건강, 사회적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
탁드리고 싶어요.(웃음)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
는 계획이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시스템 정비라고 봅니다.

이런 시설이 저희 식구들에게 완
전한 보금자리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회로의 복귀, 가족으로
의 복귀가 저희 식구들에게는 절실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이고 체계
적인 보호, 치료, 교육이 필요하
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각 개개인
의 병증 정도에 따라 보호하고, 재
활 치료하고, 경증인 경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매우 심한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요, 좀 나
아진 경우 여기 시설로 와서 사회
적응훈련과 치료를 병행하고 증세
가 아주 경미해지면 사회적으로 자
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족과 연계할 수 있
는 활동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이 순천시내에 건설 중이
예요. 이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으
면 세 박자 네 박자가 딱 맞아 떨어
지지요. 매우 희망적입니다.(웃음)

불교계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사회복지
운동가로서의 충언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요.

일반인으로서 불교계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만 조심스레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인애원 원장님과의 인터뷰 모습



합니다.

사실 불교계는 수행적인 면에 초
점이 맞춰져 있어서 실질적인 사회
복지운동 혹은 사회적인 액션에 부
정적이랄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이 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더
욱이 전통강원에서 복지시설 방문
하는 것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요.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
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점 장점을
보시고 특히 소외계층에 관심 있고
활동하시려는 스님들을 위해서 종
단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속
적으로 그분들을 전문가로 키워서
불교 종교성에 걸맞은 종교 서비스
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
같은 일반인보다 스님같이 정복을
입은 종교인분들에게는 특별한 에
너지가 있어서 이런 곳을 찾아오는
가족들이나 환우에게 더 큰 안위와
믿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에너
지를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스님들이 의욕적
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불교적인 사회
복지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인터뷰 마침 -

법사 학인스님 말씀

연성스님: 이 활동이 시작된 지가
올 해로 4년째 접어드는데 3년 전
대교반 스님들이 금강경에서 '무
주상보시' 라는 구절에서 느낀 바
를 실천하고 반 스님들 간의 단합

을 도모하는 기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대교반 도반스님들의 발심으로 이뤄진 활동이라 비용도 반비나 자비로 충당하고 적극의사가 있는 스님들 4~5분이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도반스님들의 지원도 감사할 부분입니다.



수원스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법회를 열고 있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목탁소리에 맞춰 절도하고 불·보살님을 호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법회에 비해 산만하고 어색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그 분들의 마음이 참 소중함을 느낍니다.



인애원 법회 장면

지명스님: 이 곳 식구들이 다소 지적활동이나 사회적 기능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참 순수한 면을 갖고 있고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가 정성스런 자세로 활동하고 계셔서 오히려 저희가 많이 배우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식구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원장님 모습에 감동하게 됩니다.

홍전스님: 작은 전통일지라도 앞으로 후배스님들도 이 활동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는 삶,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는 수행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취재를 마치고...

우리가 다겹생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만나고 헤어진 인연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서로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기쁘게 하고. 그 수많은 인연이 결국에는 서로를 일깨워주고 마음의 진화를 이끌어주는 도반이요 스승이기에, 오늘 하루 서로의 마음을 간절히 헤아려 찰나찰나 주고받는 가르침을 돌아내게 들이고 내야 할 것이다.

요양원 원생의 생활수기 한 구절이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동안 주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발 내 꿈, 나의 희망이 이뤄졌으면…….’

취재 | 편집실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전화상담 및 후원 안내

- 상담: 부랑인·정신장애인 입·퇴소 관련
- 후원: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100%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 문의전화: 061) 721-1565, 0244
- E-mail : ine@ine21.com

소문所聞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떤 비구가 성 안의 한 여자와 웃고 장난하다가 나쁜 소문이 퍼졌다.

그 비구는 스스로 생각하였다.

“내가 조심하지 않아 남의 여자에게 나쁜 소문을 일으키고 말았다.

차라리 숲 속에서 자살하고 싶다.”

숲 속에 살던 한 천신이 비구에게 잘못이 없음을 알고
그를 일깨워주기 위해 그 여자의 몸으로 변해서 말했다.

“너와 나는 이미 나쁜 짓을 했다고 소문이 났다.

이미 나쁜 소문이 퍼졌으니 차라리 속세로 돌아가 함께 살자.”

“너와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세상에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나는 자살하려 한다.”

이 말을 들은 천신은 본래의 몸으로 돌아가 계송으로 말했다.

“비록 나쁜 소문이 퍼졌다 해도

고행하는 이는 기꺼이 참는다.

괴롭다고 스스로 해쳐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번민하지도 말라.

소리만 듣고 놀라는 것은 숲 속의 짐승 풀이니

짐승처럼 가볍고 성급한 마음으로는

출가법出家法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대는 마땅히 참아 그 나쁜 소문을 마음에 두지 말라.

마음을 잡아 태산처럼 굳게 하는 것이

출가한 사람의 법이니라.

함부로 남이 떠드는 말로 말미암아

내 몸을 나쁜 도적으로 만들지 말라.

떠도는 말에 흔들리지 않으면

너 또한 아라한이 되리라.

네가 스스로 네 마음을 아는 것처럼

여러 하늘도 그렇게 알고 있느니라.”

잡아함경 제50; 1344경 1-2;〈2-370중〉

별역잡아함경 제16; 364경;〈2-491하〉

만행漫行

연옥鍊玉 | 사집

치문반 하안거 해제하던 날!

방학기간이라 말사에 있게 되었는데 하안거를 마치고 나간 도반스님을 한번 찾아 가보고 싶었지만 치문반 때는 조용히 기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 터라 만행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침 사형스님이 왈,

“스님 불일 있으면 며칠 다녀오시소, 내가 기도해 줄게요.”라고 말씀하셨다.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래도 되냐고 몇 번 더 묻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만행 길에 올랐다. 출가하기 전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만행! 걸망하나 짊어지고 탁발에 의지하며 퇴약별을 지나고 비바람을 맞으며 석양에 쫓겨 잠자리를 찾아 발길을 재촉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걷던 옛 스님들의 고행과는 거리가 멀어진 만행이지만, 기차타고 버스타고 출가하고 나서 송광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길을 가고 있었다.

먹구름이 지기 시작하는 먼 하늘이 먼지 낀 차창을 통해 눈에 들어오고 빠르게 지나치는 가로수 사이로 보이는 이제는 우리나라 어딜 가도 별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 시골 풍경에 지나간 시간의 기억이 겹쳐진다. 그나저나 잘 지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도반스님을 향해 출발했다. 신촌 터미널을 출발한 버스는 어느덧 강화대교를 지나서 달리고 있었다.

고려시대에 몽고군을 피해 임금님이 몽진했다는 곳으로 삼별초의 근거지로 조선시대엔 강화도령 철종 임금님의 고향이며 한말 신미, 병인양요 등 우리역사의 고난과 함께 하며 자주 등장했던 강화도. 왠지 섬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하늘은 계속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온수리입니다. 내리세요.”

버스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에서 내리니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졌다. 근처 가게에서 우산을 하나 사서 쓰고 전등사 가는 길을 물어 가파른 아스팔트 길을 오르고 있었다. 어두워질 시간은 아니었지만 날씨가 흐려서인지 산길은 어둡게 느껴졌다. 빗방울이 몇었는지 우산 위에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올 듯 말 듯한 비는 소나기로 내리려는지 뚝 드리며 짙은 짙은 내리고 있었다.

출가하기 전과 달리 매표소에서 인사까지 받으면서 처음으로 무료입장하게 되어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일주문을 지나 종무소에서 도반스님 이름을 묻는데 뜻밖에 송광사 강원 윗반스님을 만나게 되어 바로 그 스님의 안내로 도반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안거가 끝나고 말없이 떠나버린 터라 섭섭했었는데 만나고 보니 반가운 생각이 먼저 들었다.

“간다고 말이나 하고 가지 그냥 갔소?”

“말할게 뭐 있노. 그냥 가는 거지?”

경상도 억양의 싱거운 말로 답하는 도반스님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나서 같이 공양하고 차 한 잔 하며 지난 얘기를 나누다가 뒷산으로 포행을 나섰다. 비는 여전히 오는 듯 마는 듯 하며 나뭇잎과 대지를 적셨다. 어둠 속으로 서서히 숨어드는 비를 머금은 나뭇잎과 풀잎은 수줍은 아이의 웃음처럼 싱그럽고 깨끗했다. 주위는 적막이 감싸고 가파른 산골 숲길을 오르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를 흔들며 자그맣게 들려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이의 비명 소리가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 열심히 산길을 뛰어 가보니 개 두 마리가 노루인지 고라니인지 분간이 안 가는 작은 새끼를 물고 있었다. 도반스님은 얼른 개들을 쫓고 발버둥치는 그놈을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갔다.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마친 후 돌아오는 데 그만 새끼짐승은 죽고 말았다. 우리는 그 새끼 짐승을 뒤로한 채 씩씩한 얼굴로 돌아섰다.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그날 밤에 나는 금강경 사구계를 몇 번 되새이며 잠이 들었다. 밤부터인지 새벽부터인지 모르게 오기 시작한 비는 새벽예불 소리 위로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다. 비에 젖은 새벽예불소리는 촉촉이 젖어서 내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부처님 얼굴의 미소는 범당 가득 흘날렸다.

이튿날 여기저기 도량청소며 울력 하느라고 바쁜 도반 스님과 간단히 작별하고 길을 나섰다. 그길로 서울에 불일을 보고는 송광사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치문반 하안거 방학을 마치고 어느덧 사집반이 되어 다시 하안거를 맞이하고 있다. 며칠 전 사시 법공양을 마치고 땀에 흠뻑 젖어 지대방에 들어섰는데 불교신문에서 어느 승가교육기관의 신입생 환영회 속에 있는 그 도반스님 사진을 발견하였다. 다시 새로운 길을 들어선 그 도반스님은 즐거운 듯 웃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만행을 가고 싶어 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제는 선뜻 길을 나서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하안거 해제 후 사제스님이 방학하고 오면 꼭 한마디 하리라.

“스님 어디 불일 있으면 며칠 다녀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定慧社

상생죽필문想生竹筆文

인법印法 | 사교

불별 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최침단을 지향하며 맥박 뛰듯 바뀌어가는 디지털 문명 앞에 시원스럽다 못해 겨울에야 느낄 수 있는 차가운 서릿바람을 느끼면서 사는 몇몇 부유층하고는 달리 의례히 이곳 송광사 스님들은 그저 먹구름을 몰고 오는 끈적끈적한 바람마저도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인 여러 개의 대나무살에 의지해 붙어있는 얇은 종이의 흔들림에 크나큰 기쁨을 누리 본다는 사실이 지극히 여법한 도량에 여법한 자세인 듯싶다. 이렇듯 이 도량의 가풍家風은 기정 품생품사의 정신이 오늘날의 최침단의 수행도량修行道場을 가꾸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흔히 사찰에서는 본격적인 여름과 겨울준비를 이렇게 하며 살아간다. 여름에는 대나무 좌복과 부채 겨울에는 방한화와 털모자 외 군용 깔깔이(?)를 준비한다. 다른 강원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최신 군용 깔깔이를 대폭적으로 중흥케 한 장본인이 아마도 필자일 듯 싶다. 치문반 때 너무도 추워서 용산에 있는 모 군용품 판매점에서 직수입해 입고 다니는 저를 보며 저마다 어디서 샀는지 도반스님과 윗반스님으로부터 무한한 관심에 대폭적인 보급로를 마련해서이다.

또한 고무신에는 저마다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특수의 상형 문자 또는 예쁘고 귀여운 자기만의 이미지 마크를 연출 해 낸다.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유형을 소개하자면 대략 이렇다.

- 만화속의 피카츄 형.

^^, *.* ^_^!!

- 법명의 약자를 딴 이니셜(initial) 형.

海 j 印

이 두 가지 유형은 양쪽 신발에 같이 표시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체기용宗體起用 형의 대표적인 사교반 모 스님의 신발에는 ‘능嚴’이라 써져 있으며 애국심이 강한 모 스님은 태극기를 그린 반면에 사집 강사스님의 신발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 ‘외 읍...?’

몇몇 아시는 스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장시키기 위해.....

또한 저마다 부채란 부채에 각기 좋은 글과 선시를 적어놨는데 극히 눈에 띄는 글귀가 있다면 ‘공자희空自噫(허공이 하품질 한다)’라 하는데 형체 없는 허공이 하품할 일은 없겠지만 부채를 펼렁 펼렁 부칠 때의 “허 흠”하는 그 부채의 하품 질 소리가 옛 선사禪師의 이름 없는 한 소식을 들려 줄 듯 싶다.

또 하나의 애뜻하고 정겨운 詩가 있다면,

憶君無所贈 贈而白雲扇

扇中有清風 風來時想憶

그대와 이별할 적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흰 구름 같은 부채 하나를 드립니다.
그 부채 속에는 항상 맑고 시원한 바람이 있으니
그 부채의 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 우리 서로 생각이나 한번 해 보세요.

흔히 연애편지 같은 시詩라 하지만 군자君者 그대의 대상이 속인俗人에게는 연인으로 스님들에게는 도반으로 여기면 아주 좋은 글이라 생각한다. 지나치게 새롭게 바뀌어만 가고 있는 세상 앞에 옛날 그대로의 방식인 승가僧家의 때 묻은 전통이라는 두 글자가 세인世人들의 눈 사랑을 받기 마련일 것이다. 지금 잠시의 불편함에 짜증보다는 언 3년卅이라는 찰라 찰나의 인욕행으로 모든 작은 사물의 이치마저도 고마움을 느끼게 한 송광사. 기계소리가 웅장하게 돌아가며 내뿜는 차가운 바람보다는 매미소리에 은은히 다가오는 솔바람의 작은 자비스러움이야말로 무더운 여름날의 값진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욕忍辱이란 애써 이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인욕된 바의 경계대상을 여실히 정견正見하여 부질없음을 알아 집착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중생衆生의 근성根性으로는 모두다 하나같이 허망되이 볼 수밖에 없는 생사윤회生死輪廻의 근본인 망견妄見의 입장에 오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지만, 오늘의 이 과거전생의 업장業障에 삼업三業이 온전치 못한 까닭으로 妄見의 그루터기를 없애지 못한 찰라 찰나의 바른 알아차림으로 언젠가는 무상정등정각 無上正等正覺을 성취하리라 믿는다.

얼마 전 사시공양 전이었다.

회주스님께서 비 오듯 흘리시는 땀을 닦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왓, “날씨가 좀 덥지? 이견 더운 것도 아니야. 더 더워야 돼! 그래야 풍년이 들어 알겠어! 풍년이 들라면 말이야 논바닥 물에 개구리가 발라당 데어 뒤집어 죽어야 풍년이 든다고 그랬어. 알겠어! 허허허... ^.^”

무더운 여름이다. 개구리가 논물에 데어 죽을 일은 없겠지만 죽竹부인 껴안듯이 하염없이 이런 글에 의지해 지난날 풍년농사에 희생된 개구리의 영혼을 위로 해봤으면 좋겠다.

人人避暑走如狂 獨有禪師不出房
可是禪房無熱到 但能心靜即身涼

사람마다 더위를 피하려고 미친 듯이 달아나려 하지만
홀로 선사禪師가 방안에 있어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구나.
이 선방禪房에는 무더운 열기가 이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능히 마음이 고요하여 몸이 청량한 것이라네. 定慧社

추신: 저의 이 글이 앞서 졸업하신 도해스님께서 쓰셨던 想生竹筆文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입니다.

詩가 있는 풍경

달빛

적문寂門 | 사집

야반삼경 창천蒼天은 아득히 검푸르고
산하대지 달빛은 잔잔히 흐르네.

달빛 젖은 법당 안 향촉香燭은 고요하고
연화좌대 본존불 은은히 미소 짓네.

깊은 사유 굳은 결의 마음길 나그네
금빛고불 무언설無言說 이 밤에 들어 마치려나.

법당 밖 달맞이꽃 금빛에 젖어들고
천년고불 무언설無言說 고요히 듣고 있네.

관觀

혜각慧覺 | 사집

삼보에 귀의하오며,

깜깜한 세상에 나를 알지 못하여
진리를 찾아 떠나네.

앞산 너머 동창에 밝은 해가 떠올라
온 누리를 밝히니
거짓된 마음 샷된 마음 없애고 산에 오르며
걸음걸음 부동진 인욕이 밝히고
목이 말라 샘을 찾으며
물의 청정함에 갈증을 풀고
산새 소리에 고개 드니
텅 빈 허공에 마음 기댈 곳 없고
자리에 앉아 땀을 닦고 쉬니
계곡너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무위를 보이네.

산을 넘어 하루를 걷다보니
파랗게 펼쳐진 바다에서
깊고 심오한 진리와 만나네.

이렇게 한 생각 툇 놓아 버려
자연과 감응하니
부처님 말씀 다름없구나.

산사의 밤

향음香音 | 사교

꽃이 진 자리마다
예불의 화음으로
새 음 돋어나고

산마루 맴도는 염불소리에
소쩍새 깨어나
밤을 적신다.

뜰 앞의 소나무 그림자
달 따라 돌다가
길게 누우면

처마 밑 풍경소리
며칠 남은 밤마저
하얗게 거두어 가고

넷물은 산문 밖 내달아
법당의 푸른 향내
실어 나른다.

수능엄경 사약장을 공부하며

능인能忍 | 사교

매일 매일 힘겨운 생활의 연속이다. 사교반이 되어 능엄경을 본 지 4달, 학기 초에는 經班이 된 뿌듯함과 經 공부의 호기심이 발화제가 되어 우리를 경전의 세계로 이끌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름대로 맛을 느껴가면서 '이것이 신심信心이구나' 하고 성취감도 느꼈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두 번이지 허구현날 힘든데 고갯 성취감이 오래 가겠는가? 지금은 의욕보다는 '여지껏 했는데…….' 하는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발악에 오기로 버티고 있다.

오늘도 저녁에 논강잔치가 예정되어있다. 잔치준비에 모든 병사(도반)들은 탄약을 챙기고 나는 오늘 공부할 사약장이라는 과단이름에 벌써 각갑~하다.

우리의 공부는 전통강법이란다. 조상의 얼을 되살린다는데 안으로 자주독립과 이견 했으니 됐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만 하면 되겠다. 방법은 저녁예불 후 가사장삼을 수한 체로 강의실 들어가 정해진 진도 부분을 단락별로 釋寫하고 論講 서기 소임을 맡은 스님의 진행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다.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서기가 다음날 問講시간에 강사스님께 질문한다. 물론 결론지어진 내용과 논의된 내용도 서기가 보고한다. 우리는 수업 후 다음날 수업할 진도를 정하고, 오후에 준비를 하여 예불 마친 후 논강을 하고 끝나면 논강에 나온 문제를 수업 전까지 궁리하고 찾아본다. 수업시간에는 刪補神(?)에게 걸리면 과단科斷을 음미하며 외우고 석사에 들어간다. 우리는 소疏를 쓴 스님의 의중을 꿰뚫고 문맥의 의미를 느껴가면서 석사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과 소문 구절에 우리 책상에는 기본 다섯 권부터 열 권 정도의 책을 쌓아놓고 보기도 한다. 머리에 열이 난다.

어찌겠는가? 그럼 또 해보자. 먼저 과단을 외우고…….

《과표에 의한 내용정리》

능엄경 일부 經文을 셋으로 나누니 첫째는 通釋經題니 능엄경의 제목을 전체적으로 해석한 것이요, 둘째는 通科判이니 경에 대한 과관을 전체적으로 서술한 것이요, 셋째는 正釋經文이라 경문의 내용에 따른 疏로써 해석한 것이다. 그 중 세 번째 正釋經文을 셋으로 다시 나누니, 첫째가 序分이라. 證信과 發起를 서술하였고, 둘째가 正宗分이니 經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즉 본론이고, 셋째가 流通分이라. 經을 널리 유통시키고자 하는 부분이다.

그 중 둘째 正宗分을 다섯으로 나누니, 첫째가 見道分이니 道를 보는 단락, 즉 여래장을 보는 단락이요, 둘째는 修道分이니 見道이후에 구체적으로 하는 수행에 대하여 서술한 부분이고, 셋째가 證果分이요 果를 證하는 상태를 서술한 부분이고, 넷째가 結經分이니 經을 맺고 이름을 확정하는 부분이고 다섯째가 助道分이니 見道, 修道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단락이다.

첫째 見道分에 다시 셋이 있으니 첫째가 決擇眞妄以爲密因이라. 眞과 妄을 決擇한 것으로써 密因을 삼는 단락이요, 둘째가 發明覺性直使造悟니 覺의 성품을 밝혀내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단락이고, 셋째는 深窮萬法決通疑滯라. 萬法을 깊이 窮究하여 의심을 풀고 막힘을 통하게 하는 단락이다. 두 번째 發明覺性直使造

悟에는 셋이 있으니 첫째는 經家 意니 經을 편집한 이가 상황을 서술한 것이요, 둘째는 問答發明이니 묻고 답 하면서 밝힘이요, 셋째는 時衆造悟라 그 때의 참여대중으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부분이라. 두 번째 問答發明에 열하나가 있으니 첫째는 卽身變異明不生滅이니 몸이 변하고 달라짐에 의지하여 精見은 生滅이 없음을 밝힘이요, 둘째는 依手正倒明無遺失이니 손을 바로하고 거꾸로 함에 의지하여 眞性은 유실됨이 없음을 밝힘이요, 셋째는 辨斥緣影甄別混疑니 攀緣의 그림자로 本性을 삼는 것을 잘못이라고 물리치고, 섞이는 의심을 밝혀서 가려냄이요, 넷째는 依八境示見性無還이니 여덟가지 경계에 의지하여 見性은 돌아갈 것이 없음을 보인 부분이요, 다섯째는 卽諸物像決擇眞性이니 諸物像에 즉하여 眞性을 결연히 택한 부분이라. 여섯째는 明見眞體本絕限量이니 見의 진실한 體는 본래 限量이 없음을 밝힌 부분이요, 일곱째는 明見與緣同一妙體니 見과 緣이 同一한 妙體임을 밝힌 부분이요, 여덟째는 辨明眞說甄別疑 이니 眞說을 밝혀내어 佛法과 外道の 法이 넘쳐 섞여 疑濫을 밝혀서 가려냄이요, 아홉째는 廣明 妄重開慧目이니 허망한 눈병으로 인한 迷惑을 널리 밝혀 지혜의 눈을 거듭 열어주시는 부분이요. 열번째는 卽諸根塵顯如來藏이니 모든 根이 그대로가 如來藏妙眞如性임을 나타내는 부분이요, 열한번째는 廣舉七大圓示藏性이라 七大를 널리 들어 如來藏性을 원만히 보이는 부분이라. 이 중 다섯 번째 卽諸物像決擇眞性에 들어 있으니 첫째는 阿難° 問이니 아난이 앞의 들었던 법문을 근거해서 질문 하는 부분이며 둘째는 佛與決擇이니 부처님께서 질문을 決擇하여 주시는 부분이다.

이것은 다시 다섯으로 나누니 첫째는 泛敍見用이니 四聖六凡의 見의 작용을 통괄적으로 서술한 것이요, 둘째는 卽物決擇이니 物에 卽하여 見性은 物이 아님을 決擇하는 부분이요, 셋째는 正示見性이니 見性을 바로 보이는 부분이다. 넷째는 辨見非物이니 見은 物이 아님을 辯論하심이요 다섯째는 牒顯結答이라 牒하여서 眞性을 나타내고 결론적으로 답하시는 부분이다. ‘四若章’은 넷째 辨見非物 부분에 있다. 諸物의 相은 차별이 있으나 見性은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시고는 見性이 物이라면 왜 성립이 안 되는지를 반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진도 나가볼까. 계환소가 교재니깐 해석부터 해보고…….

《戒環疏》

四는 辨見非物이라. (四는 見은 物이 아님을 변론하시다.)

若見是物인댄 則汝亦可見吾之見하리라. (만약 見이 物이라면 즉 너는 또한 나의 見을 볼 수 있으리라.)

• 음. 보는 見이 物이 되버리면 당연히 볼 수 있겠지. 物은 볼 수 있으니깐. 별거 아니네! 스타트 좋고.

物則可見이니 此는 ° 上咸物非汝之言하야 重辨也니라.

(物이라면 보일 수 있으니 이것은 위의 ‘咸物非汝’라는 말을 ° 하여 거듭 밝힌 것이니라.)

• ° 하였다는 말은 그곳을 근거로 밟고서 변론을 진행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物은 汝가 아닌데, 見이 物이라면 見은 汝가 될 수 없는 거지. 근데 위가 어디야? 어~ 9장 하 1항 이구나.

若同見者로 名爲見吾인대 吾不見時에 何不見吾의 不見之處오.

(만약 함께 보는 것으로 나를 보는 것이라고 말할진대 내가 보지 않을 때에는 어찌하여 나의 不見之處를 보지 못하는고.)

• 뭐야 이거? 뭐 소리야? 또 시작이군. 어쩐지 잘나간다 했다. 함께 보는 것으로 나를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어느 물건 같은걸 동시에 바라본단 소린가? 칼릴 지부란이 말 생각나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

니고 어느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헤헤. 그렇다치고 내가 보지 않을 때에는 어찌하여 나의 不見之處를 보지 못하냐는건 뭐야? 不見之處를 보지 못하냐고? 본다는 얘기야? 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보지 않을 때에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하냐는게 뭐냐고요~.

同見者는 依物之迹也요 不見者는 離物之體也라 若謂吾汝同見一物로 是見吾之見인댄 特迹而已니 當吾離物不見之時하야는 其體 何在오 既無處可見인댄 定非是物矣로다.

(함께 보는 것은 物에 의지한 자취요 보지 않는 것은 物을 여윈 體이니라. 만약 내가 너와 함께 한 물건을 보는 것으로 나의 見을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다만 자취일 뿐이니 마땅히 내가 物을 여의고서 보지 않을 때에는 그 體가 어느 곳에 있겠는가? 이미 보일 수 있는 처소가 없을진댄 결정코 物이 아니로다.)

• 疏를 보자. 經文을 설명하고 덧붙인 것이니까. ‘함께 보는 것은 物에 의지한 자취요.’ 그렇겠지. 상대의 시선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物에 상대의 시선이 꽂혀 있다는 자취를 가지고 상대의 시선을 본다고 우기는 걸 테니깐. ‘보지 않는 것은 物을 여윈 體이니라.’ 그렇지. 보지 않는 것은 物 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體일 수밖에. ‘만약 내가 너와 함께 한 物을 보는 것으로 나의 見을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다만 자취일 뿐이니’ 그래 여기까진 됐고, ‘마땅히 내가 物을 여의고서 보지 않을 때에는 그 體가 어느 곳에 있겠는가?’ 여기서 이해가 안가. 뭘 소리지????

不見之處, 不見之處, 不見之處……. 아! 不見之處란 건 없는 거지! 見이란 것이 볼 수 있다면 不見이란 것도 볼 수 있겠지. 見이 존재한다면 不見도 그림자처럼 당연히 존재해야 하니깐. 밝음이 존재하기에 밝음이 없으면 어둠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不見이란 것을 본다면 不見이 아니지. 그러니깐 經文에 보지 않을 때라면 不見할 때고, 不見할 때 不見하는 곳을 봐야 한다고 하시는 건 見할 때 見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깐 그 반대도 성립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그러시는 거지. 見에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 不見도 봐야 하는 건데, 不見을 어떻게 봐? 그러니 보지 않을 때에 그 體가 갈 곳, 갈 수 있는 相이 없지. 그러니 말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아휴! 한 고비 넘겼네.

若見不見인댄 自然非彼不見之相이니라. (만약 不見을 본다면 자연히 저 不見의 相은 아니리라.)

• ‘저 不見의 相? 또 뭘 소리?’

縱辨也라 縱使妄意로 謂能見吾不見者라도 終自非是彼不見相이니 蓋彼不見相은 非見所及이니라.

(양보 논법으로 한 것이다. 비록 망령된 뜻으로 능히 나의 不見이 볼 수 있다고 여기더라도 마침내 자연히 저 不見의 相은 아닐 것이니 대개 저 不見의 相은 見이 미치는 곳이 아니니라.)

• ‘대개 저 不見의 相은 見이 미치는 곳이 아니니라.’ 아! 見이 미치지 않는 不見의 相을 봤다고 하지 못하겠지.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지 不見을 봤다고 하면 不見이 안되지. 봤다문 나쁜 놈이지~.

若不見吾의 不見之地인댄 自然非物이어나 云何非汝리오.

(만약 나의 不見의 장소를 보지 못한다면 자연히 物이 아닐 것이니 어찌 네가 아니리오.)

• 음. 不見의 相은 당연히 볼 수 없고 不見을 못 본다면 見도 못 볼 테고 見이나 不見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연히 物이 아니지. 物은 볼 수 있다고 전제되어 있으니깐 또 物이 아니어서 볼 수 없다면 변할 수 없고 恒常하는 걸 테고 영원히 恒常한다면 진정한 나의 自성이겠지.

見既非物인댄 卽眞汝性이니라. (見이 이미 物이 아니라면 바로 참된 너의 성품이니라.)

• 두 말하면 잔소리. 이럼 된 건가? 四若章도 별거 아니네. 그럼 계환스님의 疏文에 의지해서 經文을 정리해 볼까.

‘모든 物은 汝가 아니다’ 라는 말을 밟고서 ‘만약 見이 物이라면 너는 나의 見을 볼 수 있을 것이나 見은 볼 수가 없으니 見은 物이 아닌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거지. 그러자 아난이 방어하는 말이 ‘見이 物을 보는 자취에 의지하여 부처님과 한 물건을 함께 보는 것이 부처님의 見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자취가 없을 터인데 그 때는 나의 不見의 體가 어디 있겠느냐? 그 때는 보일 수 있는 처소가 없으니 고로 不見의 體는 物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신다. 또 부처님께서 양보하여 論하시길 ‘비록 나의 不見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不見의 相은 아닐 것이니 왜냐하면 不見의 相은 見이 미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다시 네가 不見의 地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볼 수 없는 것이 자연히 物이 아니니 見은 너의 참된 성품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능엄경 義疏註經 - 장수자선》

二廣破展轉執情二。(情識에 집착하여 굴러 계교한 것을 널리 破함.)

一師資能見互緣破三。(스승과 제자가 능히 서로의 攀緣을 능히 볼 수 있다는 것을 破함.)

一正破 (바로 破함.)

若見是物。則汝亦可見吾之見。

汝若執言。汝能見心同所見物亦有差別。斯則見即是物。佛之見性亦合是物。應被汝見。

(네가 만약 집착하여 말하기를 네가 능히 볼 수 있는 心이 보이는 物과 같다면 또한 차별이 있는 것이니 이러한즉 見 그대로가 物인 것이다. 부처님의 見性도 또한 합당히 物이 되므로 응당 너의 見을 입으리라.)

- 장수 疏는 계환스님이 疏를 쓸 때 근거로 해서 쓴 疏이기에 계환 疏와 비슷한 관점이 많지.

二轉破 (굴려서 계교하여 破함.)

- 전과라고 하니 굴려서 계교한다는 뜻은 있는데 그리 해석하자니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

若同見者名爲見吾。吾不見時。何不見吾不見之處。

汝若執言。我與世尊同緣物時。世尊之見既着彼物。我見物時便是見佛之見。經文省略。但云見吾。此牒所計也。即便破云。吾不見時何不見吾不見之處。意云。我若不緣彼物之時名爲不見。此不見體汝應合見。爲何不見也。

(네가 만약 집착하여 말하기를 “제가 세존과 함께 物을 攀緣할 때에 세존의 見은 이미 저 物에 착상되었으니 제가 物을 볼 때가 곧 부처님의 見을 보는 것입니다.” 經文이 생략된 것을 살피면 다만 ‘見吾’ 라고 이른 것은 이렇게 계교한 바를牒한 것이다. 곧 바로 破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지 않을 때 어찌 나의 不見之處를 보지 못 하는가”라고 하신 것이다. 뜻은 ‘내가 만일 저 物에 攀緣하지 않을 때를 이름 하여 不見이라 한다면 이 不見의 體를 응당 네가 합당히 보아야 할 것이거늘 어찌 보지 못 하는가’ 인 것이다.)

若見不見。自然非彼不見之相。

此破轉計也。汝若執言。我亦見佛不見之體復有何失。故云若見不見。即便破云。自然非彼不見之相。意云。不見之體既被汝見。此則何成不見之相。不見之體已被見故。

(이것은 굴러 計巧한 것을 破한 것이다. 네가 만약 집착하여 말하기를 “내가 또한 부처님의 不見의 體를 본다면 다시 무슨 실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고로 若見不見이라고 이룬 것이다. 즉 바로 破하여 이르기를 “자연히 저 不見의 相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뜻은 不見의 體가 너의 見을 입었다면 이러한 즉 어찌 不見의 相이 성립되어서 不見의 體가 이미 見을 입는가 하는 이유를 말한 것이다.)

• 아 장수스님은 不見이란 것을 윗 내용을 받아서 不見의 體로 보셨구나. 그렇겠지. 계환스님도 그렇게 보신 것 같다. 아깐 몰랐지만.

三結破 (결론지어 破한 것이다)

若不見吾不見之地。自然非物。云何非汝。

此文之意。展轉結歸都有五重。以顯阿難見性。經文存三。而隱二意。若具論者。合云。若不見吾不見之處。亦不見吾見處。既不見吾見處。吾見自然非物。吾見若非是物。汝見亦非是物。汝見既非是物。云何非汝眞見。

(이 글의 뜻은 굴러 펼쳐 모두 다섯 번을 거듭하고 결론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난이 見의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경문에 3가지가 있고 2가지 뜻이 감추어져 있다. 만약 論을 갖추하고자 한다면 합당히 이르길 ‘만약 나의 不見之處를 보지 못한다면 나의 見處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미 나의 見處를 보지 못한다면 나의 見은 자연히 物이 아닐 것이니 나의 見이 만일 物이 아니라면 너의 見 또한 物이 아닐 것이다. 너의 見이 이미 物이 아니라면 어찌 너의 참된 見이 아니리오’ 인 것이다.)

• 다섯 번이라 함은 첫째 若不見吾不見之處。둘째 亦不見吾見處。셋째 既不見吾見處。吾見自然非物。넷째 吾見若非是物。汝見亦非是物。다섯째 汝見既非是物。云何非汝眞見이겠지.

그럼 장수자선 疏를 정리해 볼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 네가 만약 능히 볼 수 있는 心이 보이는 物과 같다고 한다면 또한 차별이 있는 것이니 이러한즉 見 그대로가 物인 것이다. 부처님의 見性도 또한 합당히 物이 되므로 응당 너의 見을 입으리라. 그러자 아난이 말하길 “제가 세존과 함께 物을 攀緣할 때에 세존의 見은 이미 저 物에 착상되었으니 제가 物을 볼 때가 곧 부처님의 見을 보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곧 바로 破하여 이르기를 “내가 만일 저 物에 攀緣하지 않을 때를 이름하여 不見이라 한다면 이 不見의 體를 응당 네가 합당히 보아야 할 것이거늘 어찌 보지 못 하는가”라고 하신다. 또 아난이 말하기를 “내가 또한 부처님의 不見의 體를 본다면 다시 무슨 실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不見의 體가 너의 見을 입었다면 이러한 즉 어찌 不見의 體가 不見의 相이 성립되어서 不見의 體가 이미 見을 입는가 라고 말한 것이다. 또, 말씀하시길 “만약 나의 不見之處를 보지 못한다면 나의 見處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미 나의 見處를 보지 못한다면 나의 見은 자연히 物이 아닐 것이니 나의 見이 만일 物이 아니라면 너의 見 또한 物이 아닐 것이다. 너의 見이 이미 物이 아니라면 어찌 너의 참된 見이 아니리오”라고 하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보면 계환 疏와 내용의 흐름이 같다.)

《능엄경 강의 - 원영법사》

• 원영법사는 가장 최근에 살았던 분이시기에 모든 疏들을 종합, 선별하신 느낌과 견해가 있지.

午三 反辨見不是物 (見은 物이 아님을 반대로 변론하다.)

若見是物，則汝亦可，見吾之見？

此數節文，承上反辨，見不是物。上科已將物，見分析明白，物有差別，見性無殊，則見當然不是物。反辨云：若汝執言，見即是物，即當有相，見若有相，則汝見有相，我見亦當有相，則汝亦可見吾之見，畢竟作何形相？試問我見之相，同於何物？爲方圓耶？爲大小耶？

(이 여러 마디의 글은 위의 글을 잇되 見은 物이 아님을 반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위의 과에서 이미 物을 가져 見을 명백하게 분석하였으니 物은 차별이 있으나 見은 달라짐이 없어서 즉 見은 당연히 物이 아닌 것이다. 반대로 변론하여 이르길 : 만약 네가 집착하여 말하기를 見이 그대로 物이라고 한다면 곧 마땅히 相이 있을 것이요, 見이 만약 相이 있다면 즉 너의 見도 相이 있을 것이고 나의 見도 또한 相이 있을 것이니 즉 너 또한 나의 見을 볼 수 있으리니 필경에 어떠한 형상을 짓는가? 시험 삼아 묻노니 내 見의 相은 어떤 物과 같은가? 모난 것인가? 둥근 것인가? 큰가? 작은가? 라고 이르는 것이다.)

若同見者，名爲見吾，吾不見時，何不見吾不見之處？

前二句防謬，下三句難破。若謂汝我同見萬物之時，我見在於物上，汝見此物時，即名爲見吾之見者；下即難其當見不見，則吾收視不見物時，汝亦當見吾不見之處，現今吾不見物時，汝何以不能見吾不見之體，在於何處？既不能見吾不見之處，而說能見吾見物之見者，亦不足信也。譬如我手取物之時，伸在物上，爲汝所見，吾不取物時，手在何處，汝亦應見？

(앞의 두 구절은 오류를 막으신 것이고 아래 세 구절은 힐란하여 破한 것이다. '만약 너와 내가 萬物을 함께 볼 때에 나의 見이 物위에 있고 너의 見도 이 物에 있을 때 곧 이름하여 나의 見을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다 ; 아래에 바로 그것을 힐란하여 見이 보지 못함을 당한다면 즉 나의 시야를 거두어 物을 보지 않을 때에 네가 또한 마땅히 나의 不見之處를 보아야 할 것이니 현재 지금 내가 物을 보지 않을 때에 네가 어찌하여 나의 不見之體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능히 보지 못하는가? 이미 나의 不見之處를 능히 보지 못한다면 나의 物을 보는 견을 見을 능히 본다고 하는 말도 또한 죽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비유하건데 나의 손으로 물건을 취할 때에 손을 펴서 物위에 놓는 것으로 네가 물건을 보는 것으로 삼는다면 내가 물건을 취하지 않을 때에는 손을 어디에 두어야 네가 또한 응당 보는바가 되겠는가와 같은 것이다.) 여기까진 앞의 疏들과 맥락이 같다.

若見不見，自然非彼不見之相；若不見吾不見之地，自然非物，云何非汝？

此°前何不見吾不見之處，防阿難謬答能見，故分開若見若不見兩途，俱反證見性非物。上二句，謂若能見我收視不見之處，自然是我能不見之見體，自然非彼所不見之物相。自然二字，即分明義；非彼不見之相六字，即非物二字。此句與第四句，自然非物四字同，乃譯者潤文之巧耳。此文欲求義理明白，須知彼字即指物言，當與我字對看，再用能所二字對釋，我見爲能見，彼物爲所見，例如眼根見物，是我能見之見體，非彼所見之物相。今不見物，照上例云：自然是我能不見之見體，自然非彼所不見之物相此句，即自然，非物四字。不必過於搜索，愈晦本意。下二句，若不見吾不見之地，則吾之見，自然非物。何以故？若是物，收視不見時，必有所在之處，當然令汝可見，既不能見，當然非物。吾之見既非是物，汝之見亦應非物，故末句結曰：云何非汝眞性？此云何非汝句，即答阿難前言，云何得知，是我眞性相對。三反辨見不是物竟。

(이것은 앞에 何不見吾不見之處를 ° 한 것이니, 방어하여 아난이 '능히 본다' 라고 그릇되게 답하는 연고로 '만약 본다면', '만약 보지 못한다면' 의 두 길로 나누어 열어서 모두 見性은 物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위의 二句는 내가 시야를 거둔 不見之處를 능히 본다면 자연히 이것은 능히 不見하는 見의 體일 것이요, 자연히 저 不見하는 곳의 物像은 아닐 것이다 를 말한 것이다. 自然이란 두 글자로 그대로 분명한 뜻을 밝히니 ; 非彼不見之相의 여섯 자가 바로 非物의 두자이다. 이 句와 제4句가 自然非物 네 글자와 같으니 바로 譯者가 글을 윤택하게 하는 기교일 뿐이다. 이 문장은 뜻과 이치를 명백히 구하고자 한 것이니 모름지기 '彼' 라는 글자가 物을 가리킨 말임을 알아야 하며 마땅히 '我' 라는 글자와 상대하여 보아야 할 것이며 다시 '能所' 두 글자로 상대하여 해석하여 써 보아야 할 것이니 我見은 能見이 되고 彼物은 所見이 되고 眼根으로 物을 보는 것과 같은 예이니 이것은 나의 능히 보는 見體이지 저 보이는 바의 物相은 아닌 것이다. 지금 物을 보지 못하니 위의 예를 비추어 이르길; 자연히 나의 能不見의 見體이지 자연히 저 보이는 바 物相은 아니리라는 이 句가 곧 自然, 非物 의 네 자이다. 지나치게 찾을 필요는 없으나 본래 뜻이 더욱 감추어져 있음이라. 아래 二句는 만약 나의 不見之地를 보지 못한다면 즉 나의 見은 자연히 物이 아닌 것이다. 어째서 인가? 만일 物이라면 시야를 거두어 보지 않을 때에 반드시 所在가 있어 당연히 너로 하여금 가히 보게 할 것이니 이미 보지 못한다면 당연히 物이 아닌 것이다. 나의 見이 이미 이 物이 아니라면 너의 見 또한 응당 物이 아니니 고로 마지막 句에 결론지어 이르길 : 어찌하여 너의 眞性이 아닌가? 이것은 '云何非汝' 句이니 곧 아난이 앞에 말한 '이것이 나의 眞性を 상대하는 것임을 어찌 알 수 있는가' 에 대한 답이다. 三 見은 物이 아니라고 반대로 변론한 것을 마치다.)

• 위의 二句라는 것은 若見不見, 自然非彼不見之相이겠지. 원영스님은 不見之相을 物로 보셨구나. 장수스님이나 계환스님은 若見不見, 自然非彼不見之相에서 若見不見의 不見을 不見의 體로 보아서 '不見의 體가 너의 見을 입었다면 이러한 즉 어찌 不見의 相이 성립되어서 不見의 體가 이미 見을 입는가' 라고 하신 것은 不見의 體가 見을 입을려면 不見의 相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 될 수 없으니 不見之體를 보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셨고 원영스님은 若見不見, 自然非彼不見之相에서 若見不見의 不見을 不見이라고 하는 物로 보아서 能不見의 見體가 所不見의 物相을 보게 되는 것이니 不見을 보았다는 것은 저 所不見의 物相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신 것 같네. 한쪽에서는 不見을 不見之體로 보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不見을 不見이라는 物로 보신 것 같네. 또, 원영스님은 下二句에서 장수선사의 오종결귀에 세 가지는 나타내고 두 가지는 은략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다 생각하셨는지 '이미 보지 못한다면 당연히 物이 아닌 것이다. 나의 見이 이미 이 物이 아니라면 너의 見 또한 응당 物이 아니니 고로 마지막 句에 결론지어 이르길 : 어찌하여 너의 眞性이 아닌가' 라고 간략하게 보셨네. 아 그럼 이제 된 건가? 이것으로 논쟁준비 끝! 맞는 건지 원……. 뭔가 찝찝하다. 찝찝하면 꼭 뭔가 실수가 있던데. 이번에도 아마……. 오늘밤 논쟁 중에 도반들이 밝혀 주겠지. 직접적으로 밝혀주기도 하지만 내가 설명하고 답변 중에 저절로 밝혀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논쟁 때는 정말 집중력은 썩는다. 그것도 안 되면 내일 문강시간에 강사스님의 설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어렵다.

머리가 안개로 짙은 느낌이다. 아직 이러한 전통강법의 공부가 서툴러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것도 4개월 전에 비교한다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경문과 소문에 대한 견해는 짧은 재주로는 넘볼 수 없는 깊이 있는 수행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능엄경을 다시, 또 다시 볼 때마다 능엄경은 나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인지 강사스님께서도 깊이 있게 보기를 요구하신다. 깊이 있게만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깊이를 위해서 정신집중, 한문독해력, 식사조절까지 신경 쓰긴 하지만 아직 수박 겉핥는 정도인 것 같다. 스님께서도 중으로써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방법이라고 독려하시지만 지금에 가장 크게 얻었다 싶은 건 아무래도 평생 나에게 경전을 뗄 수 없다는 확신과 부처님에 대한 信心이다. 定慧社

몽산법어夢山法語(영역) 4

해안海眼 | 대교

蒙山和尚示聰上人

몽산화상蒙山和尚이 총상인聰上人에게 보이심

Master Mongsahn Instructs Venerable Chong

원문) 1. 黃¹⁾蘗이 見百²⁾丈하야늘 舉再³⁾參機緣한대 便吐舌하니 是는 得百丈力耶아 得馬⁴⁾祖力耶아.

한역) 황벽이 백장을 친견하거늘, 마조스님께 재참再參한 기연機緣을 들어 보이지 만득 혀를 내미니, 이것은 백장의 힘을 얻은 것인가, 마조의 힘을 얻은 것인가?

-
- 1) 황벽黃蘗: (?~八五〇) 법명은 희운希運, 복건성福建省 복주부福州府 민현縣에서 났다. 어려서 신동이라고 불리더니 강서성 서주부 황벽산에 가서 출가하였다가, 백장에게서 마조의 할에 백장이 깨치던 사연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치고 나서 백장의 법을 이었다. 그 위에 배휴褻休의 청을 받아 여러 곳에서 교화하였으나, 가는 곳마다 그 산 이름을 처음 출가하던 산 이름 그대로 황벽산이라 하였다. 그가 염관사鹽官寺에 있어 예불하는 자리에서 뒷날의 선종宣宗이 그에게 법문을 묻는데, 그가 세 번이나 뺨을 때린 일이 있었다. 뒤에 선종이 즉위하여 그에게 「추행사문 行沙門」 곧 행실이 거친 중이란 법호를 주려고 하자, 배휴가 간하기를 『황벽선사가 폐하에게 세 번 손질한 것은 폐하의 삼제三際 곧三世 윤회를 끊는 뜻입니다.』하여 단제선사斷際禪師의 호를 내리게 되었다.
 - 2) 백장百丈: (七二〇~八一四) 법명은 회해懷海, 속성은 왕주씨, 복건성福建省 민후현縣에서 났다. 어려서 출가하여 대장경을 열람하였고, 뒤에 마조의 시자侍者가 되어 모시고 어디로 가는데, 물오리 떼가 울고 가는 것을 보고 마조가 물기를 『저게 무슨 소리냐?』 『물오리 소립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물기를 『아까 그 소리가 어디 있느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마조는 돌아서면서 백장의 코를 잡아 비틀었다. 그는 아픔을 못 이기어 소리 질렀다. 그 때에 마조는 『그래도 날아갔다고 말할 터이냐?』하는 데서 처음 깨치고, 그 다음 마조가 「할」하는 데서 크게 깨쳤다. 마조가 입적한 뒤에 그 탑을 석문石門에 쌓고 십년동안 모시고 지내면서 마조의 법석을 계승하다가, 홍주洪州의 대웅山大雄山, 곧 지금의 남창부南昌府 봉신현奉新縣에 있는 백장산에 들어가서 교화하였다. 그때까지의 선원은 모두 율종律宗의 제도를 그대로 써 왔던 것이므로, 선종의 독특한 제도를 창설하여 선원의 모든 규칙을 자세히 만들고 더구나 경제적인 기초를 세워 놓았다. 그리하여 〈백장청규百丈清規〉는 지금까지 중국·한국·일본 할 것 없이 불교 교단의 기본 법칙이 되고 있다. 또한 공부하는 이는 물론 누구나 반드시 노동할 것을 가르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하여 죽을 때까지 날마다 몸소 일하였다. 제자들이 보기에 하도 딱해서 하루는 일하는 연장을 감추었더니 그날은 굶었다고 한다. 九十五세로 입적하였다.
 - 3) 재참기연再參機緣: 백장百丈선사 회중會衆에 남자가 사방에서 운집을 했는데 위산 山과 황벽黃蘗이 수좌首座로 있었다. 어느 날 백장화상이 대중에게 이르시되 「불법佛法은 이 적은 일이 아니니라. 노승이 옛날에 마조馬祖에 재참하였을 때, 마대사馬大師의 일할—뭇 입을 입고 바로 삼일 동안 귀가 먹고 눈이 캄캄했느니라.」 그때에 황벽이 그 말을 듣고 문득 혀를 토하니, 백장이 가로되 「그대는 이후에 마조의 법을 잊지 않겠는가?」 하니 황벽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금일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마조의 대기大機의 용용을 보았으나, 그러나 아직 마조를 알지 못하니, 만일 마조의 법을 잇는다고 한다면 이후에 아손兒孫을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백장이 이르시되 「여시여시如是如是다. 스승과 가지런하게 보이면 스승의 반도 못 되니, 스승보다 나아 바야흐로 그 법을 전수할 수가 있으니, 그대는 심히 스승의 작략作略을 초월함이 있느니라.」 하셨다.
 - 4) 마조馬祖: (七〇九~七八八) 법명은 도일道一, 속성은 마馬씨, 사천성四川省 성도부成都府 십방什放에서 나서 어려서 출가하였다. 남악南嶽에 가서 좌선坐禪하고 있는데 회양선사懷讓禪師가 물기를 『무엇하고 있는가?』 『좌선합니다.』 『좌선은 해서 무엇하려는가?』 『부처 되려고 좌선하지요.』 그 이튿날 회양선사가 도일의 앞에 가서 벽돌을 둘에 갈고 있었다. 도일이 물기를 『스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하렵니까?』 『거울을 만들려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앉아만 있으면 부처가 될 줄 아는가?』 『……그러면 어찌 하오리까?』 『우치가 가지 않을 때에 수레를 때려야 되겠는가, 소를 때려야 되겠는가? 선은 앉거나 눕는데 상관없는 것이며, 부처는 기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집착이 없고 취사取捨가 없는 것이 선이다.』하는 말 끝에 크게 깨쳤다. 그의 법을 받아 가지고, 강서성 남강南康의 공공산龔公山과 강서성 남창부南昌府 종릉鍾陵 개원사開元寺에서 교화하니, 그의 법을 받은 제자가 一三九인이나 되었다. 그의 제자 남전보원南泉普願에게서 신라의 도균道均 선사와 철감철鑑國사가 나왔고, 염관제안鹽官齊安에게서 범일梵日·진감眞鑑의 두 국사가, 귀종지상歸宗知常에게서 대모대茅化상이, 대매법상大梅法常에게서 가지迦智선사와 충언忠彦선사가, 마곡보철麻谷寶徹에게서 무염無染國사가, 서당지장西堂智藏에게서 도의道義國사와 혜철慧哲國사와 홍척洪陟선사가, 장경회운章敬懷運에게서 현욱玄昱國사와 각체覺體선사 같은 신라의 큰 스님들이 나왔었다. 당나라 덕종德宗 정원貞元 四年에 八十세로 입적하였다.

영역) When Huangpo was in Baizhang's assembly, he heard the master recount his opportune conditions and immediately stuck out his tongue. Did this attain Baizhang's strength or Mazu's strength?

2. 巖⁵頭가 見德⁶山하야늘 一喝⁷한대 便禮拜하니 是는 知恩耶아 報恩耶아 又⁸答洞⁹山語하야 云호대 我 當時에 一手擡一手擲호라하니 那裏是他的擡擲處오.

암두가 덕산을 친견하거늘, 한 번 할을 하신대 암두가 문득 절을 하니, 이는 은혜를 아는 절인가, 은혜를 갚는 절인가? 또 동산의 말을 대답하야 이르되 「내가 그때에 한 손은 들어 올리고 한 손은 내렸었느니라.」하니 어떤 것이 저의 들고 내린 곳인고?

While Yantou was in Deshan's assembly, at the master's shout, he immediately bowed. Is this bow a recognition of his kindness, or a repayment of his kindness? Also Dongshan said, "If I had been there, I would have held one hand up and one hand down." Tell me, where would he have held up and lowered his hands?

3. 見徹二老의 骨髓者인댄 便好着一¹⁰轉語하야 截斷諸方舌頭하리니 許汝得入門已호리라 其或未然인댄 急宜參究어다 若涉參究인댄 便論工夫홀지니라.

5) 암두巖頭: (八二八~八八七) 중국 천주泉州 사람. 속성은 가柯씨. 장안의 보수사寶壽寺에서 수계受戒. 이로부터 설봉의존雪峰義存·흠산문수欽山文邃와 벗이 되어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를 찾았으나 이미 입적한 뒤였다. 양산혜적仰山慧寂과 덕산선감德山宣鑒 등에 참하여 마침내 덕산 밑에서 칠통을 타파하고, 동정호반의 와룡산臥龍山 암두巖頭에다가 암자를 지으니 학자가 운집하였다. 한때는 불법사태佛法沙汰를 만나서 뱃사공 노릇을 한 일화로 잘 알려져 있다. 세수世壽 六十세에 열반, 회종僖宗 황제가 청암淸巖 대사라고 시호.

6) 덕산선감德山宣鑒: (七八〇~八六五) 속성은 주周씨. 호북성 시남부施南府 이천현利川縣에서 났다. 어려서 출가하여 계율을 숭상하고 모든 경에 밝았으나, 특히 <금강경>을 늘 강설하므로 『주금강周金剛』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루는 도반들에게 말하기를 『보살이 육도만행六度萬行을 무량겁으로 닦아야 성불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남방의 외도들은 「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단박 성불하게 한다.」하니, 내가 그들을 소탕하여 버리겠다.』하고 떠나갔다. 중도에서 떡집에 들어가서 점심點心을 청하자, 떡을 찌는 노파가 묻기를 『보따리에 쓴 것이 무엇인가요?』 『<금강경소疏요> 『<금강경>에 「지나간 마음도 얻어 볼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어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스님은 점심하신다고 하니, 어떤 마음에 점심하시겠습니까?』하는데 대답을 못하였다. 노파의 지시로 송신화상을 찾아 용담龍潭에 갔다. 용담사 법당에 들어가 그는 『용담의 소문을 들은 지 오랜데, 와서 보니 용도 없고 못도 안 보이는군!』하매, 송신은 『자네가 참으로 용담에 왔네.』하는 데서 또 말이 막혔다. 그곳에 머무는데, 방장方丈에 가서 늦도록 있다가 자기 처소로 가려 하니 바깥이 캄캄하였다. 도로 들어갔더니 용담이 초에 불을 켜서 덕산에게 내밀었다. 덕산이 받으려 할 때에 그 불을 훅 불어 꺼버렸다. 그 바람에 덕산은 크게 깨치고 절하였다. 『자네 무엇을 보았기에 절하는가?』 『이제부터 다시는 천하 노화상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용담의 법을 받고, 그 이튿날 <금강경소>를 불사르고 곧 떠났다. 당나라 무종武宗때에 일어난 불법 사태沙汰-불교를 파괴하려는 법령-를 독부산獨浮山 석실石室에서 겪은 뒤에 낭주朗州 덕산에서 크게 교화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곳에 있었는데, 있는 곳마다 불전佛殿을 폐지하고 설법하는 법당만 두었고, 학자를 다루는데 방망이를 많이 썼다. 의종懿宗 함통咸通 六年에 八十六세로 입적하였다. 그의 3세 백조지원白兆志圓에게서 신라의 혜운惠雲선사가 나왔다.

7) 할喝: 보통 속음俗音의 「갈」로는 발음하지 않는다. 선종禪宗에서 진리를 문답하는데 쓰는 독특한 수단이다. 큰소리로 『예!』하고 꾸짖는 형세를 보임이니, 이것을 처음 쓰기는 마조馬祖가 한 번 할했는데 백장百丈이 사흘이나 귀먹고 눈이 캄캄하였다는 것이 첫 기록이다. 그 뒤로부터 흔히 쓰는데, 임제臨濟가 가장 많이 썼다.

8) 우담동산어又答洞山語: 암두가 덕산에서 절한 것에 대해서 동산이 이르되 「암두만 아니었던들 덕산의 할을 알지 못하였으리라.」하거늘 그 말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때에 한 손은 들어 올리고 한 손은 내렸었으리라.」

9) 동산양개洞山良价: (八〇七~八六九) 속성은 유유씨. 절강성 소흥부紹興府 회계會稽에서 났다. 어려서 출가하여 <반야심경般若心經>을 배우다가 눈·귀·코가 없나無眼耳鼻舌身意는 뜻을 캐어물었더니 그 은사가 대답하지 못하고, 오예산五洩山の 영묵靈默선사에게 인도하여 참선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운암에게 묻기를 『혜충慧忠국사의 말에 무정無情=목숨 없는 것이 설법한다 하였는데, 무정의 설법은 어떤 이가 듣습니까?』 『무정의 설법을 무정이 듣느니라.』 『화상도 들으십니까?』 『내가 듣는다면 너는 나의 설법을 듣지 못할 것이다.』하는 데서 깨친 바 있었고, 운암의 임종 법문에 대하여 물을 건너가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비로소 크게 깨쳐 운암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계송을 짓기를,
 切忌從他覓 與我疎 我今獨自往 處處得逢渠 渠今正是我 我今不是渠 應須恁 會 方得契如如
 그 뒤에 강서성 여릉도廬陵道 고안현高安縣에 있는 동산의 보리원普利院에서 교화하여 법을 받은 제자가 스물여섯분이 있었다. 그 가운데는 신라의 금장金藏화상이 있었고, 동산의 제이세第二世 소산광인疎山匡仁에게서 신라의 명조인明照安과 동진洞眞이 나왔다. 당나라 함통咸通 一〇년에 상당 설법하고 대중을 하직한 뒤 입적하였는데, 모두 통곡하므로 다시 깨어나서 이레 동안 설법하고 앉아서 갔다. 그때 나이 六十三. 그를 종조宗祖로 삼는 조동종은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에 융성하고 있다.

10) 일전어一轉語: 심기心機를 일전시켜 깨닫게 하는 힘 있는 말. 미망迷妄을 전환시켜 깨닫게 함.

두 늙은이의 골수를 보아 사무친 놈일진댄, 문득 좋이 한 마디 일러서 제방의 설두舌頭를 끊을지니, 네가 문에 들어옴을 허락하려니와, 만약 그렇지 못하거든 급히 참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참구코저 할진댄 곧 공부를 의논할지니라.

If you are able to penetrate these oldies to the bone, then say a turning word to cut off all the tongues of all directions, and then I'll allow permission to enter the gate. If you are is not like this, then you should hurriedly investigate. If you're investigation deepens, I'll talk about practice.

4. 直須依本分하야 如法하야사 始得하리라 當於本參公案上에 有疑호리니 大疑之下에 必有大悟하리니 千疑萬疑를 併作一疑하야 於本參上에 取辦호리라 若不疑言¹¹⁾句가 是爲大病이니라 仍要盡捨諸緣하고 於四威儀內와 二六時中에 單單提箇話頭하야 廻光自看호리라.

바로 모름지기 본분을 의지하야 법다이 하야사 비로소 옳으리라. 반드시 본참공안상에 의정을 두리니 큰 의심 끝에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으리니, 천의만의千疑萬疑를 아울러 한 의심을 지어서 본참상에 판단할지니라. 만약 언구言句를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큰 병이니라. 반드시 모든 인연을 다 버리고 사위의四威儀와 열두 때 가운데 다만 화두를 잡아 빛을 돌이켜 스스로 불지니라.

You should immediately undertake your work as instructed and you will be correct. You should immediately doubt your original kongan, as a result of great doubt there will be a great enlightenment. one thousand, ten thousand doubts form one doubt; they will be resolved in your original investigation. If you don't doubt a phrase, this is a great disease. Therefore you must put an end to all conditions, in the four postures and 12 hours of the day, just keep your hwa du, turn the light around and investigate yourself.

5. 若於坐中에 得力이 最多하니 坐宜得法이언정 不要 眉努目하야 遏捺身心이니라 若用氣力하면 則招病苦하리라 但端身正坐하야 平常開眼하야 身心과 境界를 不必顧着이니라.

좌중坐中에 힘 얻음이 가장 많으니, 앉기를 법다이 할지언정 눈을 부릅뜨고 눈에 힘을 쓰거나 몸과 마음을 억누르지 말지니라. 만약 용용을 쓰면 곧 병고를 부르리라. 다만 몸을 단정히 정좌하야 평상으로 눈을 떠, 몸과 마음과 경계를 돌아보지 말지니라.

In the midst of sitting the most strength is gained. you should sit as instructed, don't open your eyes wide or strain them, and don't force or suppress your body. If you use your strength, you will invite sickness. Just sit up straight, and open your eyes normally. There's no need to focus on your body, mind, or surroundings.

11) 언구言句: 화두. 화두에 참구參句와 참의參意가 있다.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이 참의요 사구死句 참선이며, 말길 뜻글이 끊어져서 다만 그 언구만을 의심하는 것이 참구요 활구活句 참선이다.

6. 或有昏沈掉舉커든 着些精彩하야 提舉一二聲話頭하면 自然諸魔가 消滅하리라 眼定하면 而心定하고 心定하면 而身定하리니 若得定時에 不可以爲能事이니라 或忘話頭하야 沈空滯寂하면 不得大悟하야 反爲大病하리라.

만약 혼침과 산란이 있거든, 좀 정신을 차려서 한두 번 소리내어 화두를 들면, 자연히 제미諸魔가 소멸하리라. 눈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안정되리니, 만약 정定을 얻은 때에 능사를 삼지 말지니라. 만약 화두를 잊어 공수에 잠기고 고요한 데 빠지면,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야 도리어 큰 병이 되리라.

When there is dullness or scattering, if you gather your spirits and keep your hwa du, reciting it once or twice, naturally all daemons will fade away. As you steady your gaze, your mind will become steady, as your mind becomes steady, your body becomes steady. When you become steady and concentrated, don't consider this the work at hand, moreover, if you forget your hwa여 and fall into emptiness you will not achieve enlightenment, on the contrary this is a great sickness.

7. 吾¹²⁾祖가 西來하야 單提直指하야 以大悟로 爲入門하시고 不論禪¹³⁾ 定神¹⁴⁾ 通하시니 此是末¹⁵⁾ 邊事일새니라 若於定中에 得悟明者는 智慧卻能廣大하야 水¹⁶⁾ 陸에 難進也하리라.

우리 조사가 서쪽으로부터 오셔서, 다만 바로 가리킴을 잡아 큰 깨달음으로써 문에 들을 삼으시고, 선정禪定이나 신통神通은 논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말변사末邊事인 까닭이니라. 만약 정定 가운데 깨달음을 밝게 얻은 이는 지혜가 문득 능히 광대하야 수륙水陸에 아울러 나아가리라.

12) 오조吾祖: 달마대사達摩大師. (범)(Bodhidharma?—五三六) 남인도의 향지왕香至王의 셋째 아들로써 출가하여 반야다라 존자般若多羅尊者의 법을 받았다. 본국에서 오래 교화하다가 양梁나라 무제武帝 대통大通(一년五二七)에 배로 광동성 광주廣州에 닿았다. 금릉金陵에 이르자 무제가 문기를 '짐이 절을 짓고 탑을 쌓고 경을 쓰고 중을 득도시키기를 한정없이 하였는데, 어떤 공덕이 있었습니까?' '조금도 공덕이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인간이나 천상의 작은 복이며 유루有漏 공덕이 될 뿐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참공덕입니까?' '맑은 지혜는 묘하게 밝아서 뚜렷이 비치어 있을 뿐이라, 세상의 함이 있는(有爲)일로써 구할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떤 것이 거룩한 법의 첫째 가는 도리(聖諦第一義)입니까?' '흰칠하여 거룩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짐을 대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不識).' 무제는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푸대접하였다. 대사는 양자강을 건너 송산嵩山 소림사少林寺의 석굴에서 구년동안 면벽面壁하고 있었다. 혜기慧可가 와서 지성으로 법을 물었다.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소서.' '편안하게 하여 줄 터이니 너의 마음을 가져오너라.' '마음을 찾아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다.' 이에 혜가는 깨쳤다. 그뒤에 세상 인연이 오래지 못할 것을 알고, 제자들을 불러서 각기 소견을 말하라 하였다. 도부道副는 '문자에 국집할 것도 없고 문자를 버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너는 나의 가족을 얻었다.' 비구니 총지總持는 말하기를 '제가 본바로는 아난이 아촉불국을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나의 살을 얻었다.'도 육도육은 '오온五蘊이 본래 비었으므로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혜가는 다만 나와서 절하고 제자리에 물러가 섰다. 이에 '네가 나의 골수를 얻었다.'하고 부처님의 의발衣鉢과 아래와 같은 전법계傳法偈를 혜가에게 주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뜻은 오직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질 뿐, 한 꽃이 피어 다섯 잎 벌어지면 많은 열매가 저절로 맺히리니本來茲土 傳法救迷情 一華開五葉 結果自然成' 위魏나라 효명제孝明帝가 세 번이나 모시려 하였으나, 굳이 사양하고 예물만은 부득이 받았다. 그러나 광통율사光統律師같은 이들은 그를 시기하여 다섯 번이나 음식에 독약을 넣었지만 번번이 토하여 무사하였는데, 여섯 번째는 그대로 두어 그 중독으로 인하여 입적하자 웅이산熊耳山에 매장하였다. 그후에 위나라 사신 송운宋雲이 서역西域에 갔다 오다가, 총령에서 달마대사가 맨발 벗고 신 한 짝을 들고 가는 것을 만나보고 와서 그 묘를 파보니, 신 한 짝만 남았더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

13) 선정禪定: 六바라밀의 하나로 진정한 이치를 궁리하고 생각을 안정하게 하여 산란치 않게 하는 것. 여기서는 멸진정滅盡定을 구경究竟으로 하는 소승의 선禪을 가리킨다.
 14) 신통神通: 보통 사람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림을 신神이라 하고, 걸림 없는 것을 통通이라 한다. 이 신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지마는 흔히 여섯 가지로 말한다. 一, 신족神通 足通은 공간에 걸림 없이 왕래하며 그 몸을 마음대로 변화할 수 있는 것. 二, 천안통天眼通은 멀고 가까움과 크고 작은 것에 걸림 없이 무엇이나 밝게 보는 것. 三, 천이통天耳通은 멀고 가까움과 높고 낮음을 가릴 것 없이 무슨 소리나 잘 듣는 것. 四, 타심통他心通은 사람뿐 아니라 어떤 중생이라도 그 생각하는 바를 다 아는 것. 五, 숙명통宿命通은 자기뿐 아니라 육도六道의 모든 중생의 전생·금생 후생의 온갖 생애를 다 아는 것. 六, 누진통漏盡通은 번뇌 망상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제일 통으로부터 제오 통까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음을 고요히 가지기만 힘쓰는 유루정有漏定을 닦는 외도外道나 신선神仙·하늘·사람天人·귀신들도 얻을 수가 있고, 약을 쓰든지 주문呪文을 읽어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누진통만은 아라한阿羅漢이나 불·보살만이 능한 것이다. 여기서는 누진통을 제외한 오통을 가리킨다.
 15) 말변사末邊事: 지엽적枝葉的인 일.
 16) 수륙병진水陸 難進: 이리와 사수에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함.

The patriarch came from the west, just taught direct pointing, and took great enlightenment as the gate of entry; he never discussed samadhi or spiritual powers, as these are peripheral matters. If in concentration, you achieve awakening, your wisdom will become far reaching and you will be free from any kind of hindrance.

8. 工夫가 若到濃一上淡一上하야 無滋味時어든 正好進步하야 漸入程¹⁷⁾節홀지니 切不可放捨니라 惺惺하면 便入靜하리니 靜而後에 定이라 定各有名하야 有邪有正하니 宜知之어다.

공부가 혹 잘 되기도 하고 혹 안되기도 해서 아무 재미(滋味)가 없는 때에 이르거든, 바로 잘 나아가서 점점 정절(程節)에 들지니, 절대로 놓아 버리지 말지니라. 성성(惺惺)하면 곧 고요함(靜)에 들어가리니, 고요한 후에서 정(定)이라 정(定)에는 각각 이름이 있어, 사(邪)와 정(正)이 있으니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Whether practice goes well or badly, when you reach the time where there is no taste, as you advance, you will reach some critical junctures. You must not let go, if you are clear, you will enter a state of quiet, after quiet, samadhi. Each samadhi has a name; there are correct samadhi and incorrect samadhi. You should know them.

9. 起定後 身心이 輕淸하야 一切處에 省力하야 於動中에 打¹⁸⁾成一片커든 卻當仔細用心이니라.

정(定)에서 일어난 후에, 신심(身心)이 경청(淸淸)하야 일체(一切)처에 힘(力)이 덜러서 활동하는 가운데에 한 무더기 되거든, 또한 마땅히 자세히 마음을 쓸지니라.

After getting up from meditation, your body and mind will be light and clear, every situation will require less effort. If in movement your practice forms a single mass, you must use your mind with circumspection.

10. 逐工夫하야 始終에 不離靜淨二字호리니 靜極하얀 便覺하고 淨極엔 光이 通達하나니라.

공부를 해나감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靜)와 조출(淨) 두자를 여의지 말지니, 고요함(靜)이 지극하면 곧 깨칠 것이요 조출함(淨)이 지극하면 광명(光)이 통달(通達)하나니라.

Practice, from beginning to end, doesn't go beyond the words stillness and purity. As stillness develops to its peak one is suddenly awakened, as purity develops to its peak, one penetrates the great light.

11. 氣¹⁹⁾肅淸하야 動靜境界 如秋天相似時가 是第一箇程節이니 便宜乘時進步이니라.

17) 정절(程節): ①길목. 길가는 데 중요한 어귀. ②공부해 나가는데 중요한 고비.

18) 타성일편(打成一片): 좌선할 때 자타(自他)의 대립이 끊어져 오직 화두에 대한 의심만이 독로(獨露)한 경계.

19) 기숙풍청(肅淸風淸): 마음 경계가 쇠락(灑落)하고 엄숙하고 청정하고 고요한 것.

기운氣韻이 엄숙하고 바람이 맑아서 동정動靜 경계가 마치 가을 하늘 같을 때, 이것이 첫 번째 정절程節이니, 곧 마땅히 그 때를 타서 나아갈 지니라.

The vital energy is subdued and the wind fresh, in movement and stillness the mind is like the autumn sky. This is the first vital juncture, you must ride the time and advance.

12. 如澄秋野水하며 如古廟裏香爐相似하야 寂寂惺惺하야 心路不行時에 亦不知有幻身이 在人間하고 但見箇話頭綿綿不絶하리니 到這裏하얀 塵將息而光將發하리니 是第二箇程節이니라 於斯에 若生知²⁰覺心하면 則斷純一之妙하리니 大害也이니라.

마치 맑은 가을 들물 같으며, 옛 사당안의 향로 같아, 적적寂寂하고 성성惺惺하야 마음길이 끊어졌을 때, 또한 이 육신이 인간에 있는 것도 모르고 다못 화두만 면면綿綿히 끊어지지 않음을 보리니, 이 속에 이르러면 티끌은 장차 쉬고 광명은 장차 발하리니, 이것이 두 번째 정절이니라. 여기에서 만약 지각심知覺心을 내면 순일純一한 묘妙가 끊어지리니 크게 해로우니라.

Like a stretch of water in autumn, like an incense burner in an old tomb, still and silent, clear and awake, when the road of the mind is cut off, forget the fact that you have this illusory human body, just watch closely the constant uninterrupted flow of the hwadu. When you arrive at this point, the dusts are about to come to rest and the light shoot forth. This the second critical juncture. If at this point you give rise to the thought that you've awakened, you will cut off the pure wonder. This is very harmful.

13. 無此過者는 動靜에 一如하고 寤寐에 惺惺하야 話頭가 現前호대 如透水月華하야 在灘浪中하야 活²¹潑潑하야 觸하야도 不散하며 蕩하야도 不失時에 中寂不搖하며 外, 不動矣리니 是第三箇程節이니 疑團이 破하야 正眼開가 近矣리라.

이러한 허물이 없는 사람은 동정動靜에 일여一如하고, 자나깨나 성성하야 화두가 앞에 나타나되 마치 물에 비친 달빛과 같아 여울물결 가운데 있어 활발활活潑潑하야, 대질러도 흩어지지 않으며 헤쳐도 잃지 아니한 때, 중심이 고요하야 흔들리지 아니하며 밖으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세 번째 정절이니 의단이 파하야 정안正眼이 열림이 가까우니라.

For those who are free from this fault, movement and stillness will be one and the same, whether awake or asleep they will be clear and aware, the hwadu will appear before them like the moonlight penetrating water, when confronting the eddies of daily life it will not scatter, even if it's shaken up it will not be lost, Your centre will be quiet and unshakeable. This is the third critical juncture, the ball of doubt is near to explosion and the opening of the right eye is close.

20) 지각심知覺心: ①바로 이 경계로구나 알았다 깨달았다 하는 그런 마음 ②빨리 깨달으려는 마음. 누가 깨닫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21) 활발활活潑潑: 고기가 기운 좋게 물위로 뛰노는 모습.

14. 忽然築着磕着에 啐²²⁾地絶하며 爆地斷하야 洞明自己하야 捉敗佛祖의 得人憎處하야든 又宜見大宗匠하야 求煅煉하야 成大法器언정 不可得少爲足하리라.

문득 댕돌 맞듯 댕돌 맞듯 하야 즐지절 啐地絶하며 폭지단 爆地斷하야 자기를 흰하게 밝혀, 불조佛祖가 사람에게 미움받은 곳을 움아 잡거든, 또 마땅히 대중장을 친견하야 단련을 구하야 대법기를 이룰지언정, 조금 얻은 것으로 만족함을 삼지 말지니라.

Suddenly, like the meeting of mortar and pestle, or a chick hatching from its egg you see yourself clearly, and discover the point where the buddhas and patriarchs aroused the hatred of men. At this point you must see a great master, seek further training and become a great vessel for the Dharma; don't be satisfied with small attainments.

15. 悟後에 若不見人하면 未免不了後事하리니 其害非一이니라 或於佛祖機緣上에 有 處하면 是는 悟가 淺하야 未盡玄妙하리라.

깨달은 뒤에 만약 대중장을 만나지 못하면 뒷일을 요달치 못함을 면치 못하리니, 그 해탈가 하나만이 아니니라. 만약 불조기연佛祖機緣상에 막힌 곳이 있으면 이는 깨달음이 열어 현묘함을 다하지 못하리라.

If after enlightenment you don't meet a master, you won't be able to avoid not understanding the work afterwards. The harm from this is not insignificant. If you have any obstruction in regard to the opportune conditions of the ancient masters, your realization is shallow, and hasn't penetrated the mystery to its depths.

16. 既盡玄妙커든 又要退步하야 韜²³⁾晦保養하야 力量이 全備하야 看過藏²⁴⁾教儒道諸書하야 消磨多生習氣하야 淸淨無際하며 圓明無 事始可高飛遠舉하야 庶得光明이 盛大하야 不辱先宗하리라.

이미 현묘함을 다했거든, 또 다시 물러서서 이름을 감추고 지취를 감추어 보양保養하야 역량을 온전히 갖추어, 장경과 유교·도교의 서적들을 다 보아서 다생의 습기習氣를 녹여서, 청정하야 것이 없으며 원명하야 걸림이 없어야, 비로소가히 높이 날며 멀리 날아 거의 광명이 성대하야 선조사先祖師의 종풍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If you've already penetrated the mystery, take a step back, hide your traces and nurture your realization

22) 즐지절폭지단啐地絶爆地斷: 즐지절은 병아리가 알에서 껍데기를 찢고 나올 때를 말하며 폭지단은 밤을 구울 때 속이 다 익어 탁 터지는 순간을 말하는데 정진의 기연機緣이 성숙하여 확철대오 廓徹大悟할 때의 상황을 형용함.

23) 도회韜晦: 회광도적晦光韜跡의 준말. 깨달아서 인가를 받은 뒤에 오후보임悟後保任을 하기 위해서 숲속이나 토굴에 지취를 감추는 것을 말함.

24) 장교藏教: 석가여래께서 四十九년 동안 많은 사람이 모인 큰 법회에서 연설하신 것이 삼백여 회였고, 개인이나 몇 사람을 상대로 말씀하신 것은 한정 없었다.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경經·율律·논論의 삼장三藏으로 결집結集하니, 모든 이치와 온갖 도리가 그 속에 다 갖추어 있으므로 큰 창고(庫藏)와 같다 하여 대장경大藏經이라고 하며, 또한 그 글의 분량이 하도 많고 그 뜻이 너무도 깊고 넓기에, 장경 바다(藏海) 또는 교의 바다(教海)라고 한다.

until you are fully endowed with strength, study the sutras, and all the doctrines of other schools of philosophies, melt away the habitual energy accumulated over numerous lifetimes, cultivate boundless purity and complete unobstructed brightness, and for the first time you will be able to fly afar and spread the light, without bringing shame on the patriarchs of old.

17. 其或換舊時行履處를 未盡하면 便墮常流하리라 更若說時似悟나 對境還迷하야 出語如醉人하며 作爲似俗子하야 機不識隱顯하며 語不知正邪하야 撥無因果인대는 極爲大害니라 先輩의 正之與邪가 大有樣子하니라.

만약 옛 행리처行履處를 바꿈을 다하지 못하면 곧 범상한 무리에 떨어지리라. 또 만약 말할 때는 깨친 듯하나, 경계를 대하면 도로 미迷하야 말하는 것이 취한 사람 같으며 하는 짓이 속인 같아서, 기틀의 숨고 나타남을 알지 못하며, 말의 바르고 샅됨을 아지 못하야 인과의 도리를 부정할진댄 지극히 큰 해가 되느니라. 선배의 바르고 샅됨에 큰 본보기가 있느니라.

If you walk in the footsteps of those of old but don't completely fit, you will fall back into the ranks of ordinary men, and if when you speak, you seem to be enlightened, but when faced with situations return to delusion, your speech is like that of a drunk, and your actions like those of a layman, you don't know how to distinguish between hidden and open opportunities, can't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speech, and ignore the law of cause and effect, the damage done is severe. There are many examples of right and wrong in those who have gone before you.

18. 了事者는 生死岸頭에 能易麤爲細하며 能易短爲長하야 以智光明解脫로 得出生一切法三昧王하리니 以此三昧故로 得意²⁵⁾生身하야 向後에 能得妙²⁶⁾應身信身하리니 道如大海하야 轉入轉深하리라.

일 마친 사람은 생사 언덕에서 머트러운 것을 바꾸어 미세하게 하며, 능히 짧은 것을 바꾸어 긴 것이 되게 하야, 지혜 광명 해탈로써 일체법을 낼 삼매왕을 얻으리니, 이 삼매를 쓰는 고로 의생신意生身을 얻어서 향후에 능히 묘응신신신妙應身信身을 얻으리니, 도는 큰 바다와 같아서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더욱 깊으리라.

He who has completed this work, on the shore of birth and death, can transform the coarse to the refined, the negative into the positive, through the light of the wisdom of Nirvana give rise to the Samadhi King which generates all phenomena, through this samadhi transform the body at will and manifest transformation bodies. The Way is like the great ocean, the more you enter the deeper it gets.

19. 達摩가 有頌云하사대 悟佛心宗은 等無差互나 行解相應하야사 名之曰祖라하시니라. 更莫說宗門中에 有超

25) 의생신意生身: (범)Manomaya-Kaya 마노말야摩訶末耶의 번역. 신역新譯에서는 의성신意成身이라 함. 부모가 낳은 육신이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생기는 몸, 곧 화생신化生身·변화신變化身·겁초劫初의 인신人身·색계신·무색계신·중유신中有身을 포함.

26) 묘응신신신妙應身信身: 그 기연機緣에 응해서 화현하는 불신佛身, 보살에 대해서는 노사나불의 몸을 나투고, 성문聲聞에게는 장육신丈六身을 나뉜다.

佛越祖底作略하라 聰上人은 信 아 信與不信은 向後自知하리라.

달마가 송頌하여 이르시되 「부처 마음을 깨닫는 데는 한 가지라 차별이 없으나 아는 것(解)과 행行이 서로 상응
하야사 이름을 조사」라 하시니라. 또 종문 중에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방략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총상인은
믿느냐? 믿고 믿지 않는 것은 향후에 스스로 알리라.

In a verse, Bodhidharma said, 'In the awakening to the Buddha mind, there is no difference, but action
and realization must mutually respond, if one is to be called patriarch'. Once again, don't say that in this
sect there is a shortcut to transcend the Buddhas and patriarchs. Venerable Chong, do you have faith? At
the end of the day, only you are to know. 定慧社

대만불교를 다녀와서

대정(大定) | 대교

1. 서문

대교반 봄 산철 방학중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같은 반 도반인 해여(海如)스님과 함께 대만에 다녀온 소감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 글을 통해 만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훗날 대만 만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정리했다.

2. 인상적인 대만불교

대만은 불교·도교·유교가 혼합된 다신종교국가이다. 그래서 대만에는 절과 사원의 수가 8,000곳이 넘는다. 다니면서 눈에 잘 띄는 소박한 황색기와지붕은 주로 절이고, 화려한 단장을 한 황색기와지붕은 도교사원이라 보면 된다. 대만에 대한 일반상식은 지면상 생략하고, 인상적인 경험 몇 가지만 적는다. 우선 대만 사람들은 서양인 이상으로 논리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한마디로 만만디의 저력을 실감했다. 만행을 준비하면서 불광사 서울분원(T.02-2276-0993)의 주지스님이신 의은(依恩)스님께 세부일정을 부탁드렸다. 의은스님께서 불광사 본말사와 산하단체 여러 곳을 알차게 참배할 수 있도록 시간대 별로 계획을 세워 주셨고, 불광사측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짧은 시간이나마 대만불교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그러므로 대만 만행시, 불광사 참배는 필수이므로 최소한 한 달 이전에 의은스님과 일정을 상의드릴 것을 적극 권한다. 하안거 해제직후에는 무덥기는 하지만 불광사 불교대회가 있고, 각종 축제도 있는 시기라서 방문하기 좋은 때이다.

또한 우산, 땀티분, 모기약, 밀짚모자는 필수다. 우리나라와 같은 온도라도 습기가 매우 높으므로 특히 여름에는 마음준비를 하고 가야한다. 만행 첫날, 중화항공(CI)을 이용하여 대만 창세이셴 국제공항(中正國際機場)까지 2시간 30분, 다시 카오슝(高雄)공항까지 50분 만에 카오슝에 도착해서 보니 5월인데도 덥고 습한 공기가 대만임을 실감케 한다. 참고로 카오슝 직항편도 있다. 공항 공무원은 스님에게는 더 친절해 보였고, 불광사에 간다고 하면 더 친절하다는 귀뜸을 들었던 터라 방문목적으로 묻는 공무원에게 웃는 얼굴로 힘차게 '포광스(佛光寺)' 라고 대답하니 무사통과. 밖에 나오니 불광사에서 대만어밖에 할 줄 모르는 스님께서 우리 일행을 금방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고, 우리는 '포광스' 를 연발하며 무사히 불광사에 도착하였다. 불광사에 도착한 첫 인상은 삼보정재(三寶淨財)을 중히 여겨 계단 청소부터 모든 소임을 스님들이 맡아 하고 있었고, 외국방문객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안내소임을 보고 있었다. 우리 안내를 맡은 분은 한국에서 4개월 살다 불광사에서 10개월째 중국어 연수중인 S. Zaya라는 이름의 몽고 보살님이 영어로 안내를 잘 해주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어 어학연수 중인 한국 보살님도 계셨는데 하루 6시간 이상 하는 수업이 부담되어 바뀌었다고 한다. 불광사 음식은 한국 스님들에게는 잘 맞는 편이어서 첫날부터 과식을 할 정도였고, 1시간 30분의 저녁 좌선시간에 전체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오는 길에 인상적이었던 점은, 중국 본토는

자전거행렬이 장관인데 대만은 차가 있는 부자들도 대부분 스쿠터를 이용하는 검소한 모습과 여자들이 화장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수하게 다니는 모습, 그리고 거리에 술집을 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객실은 호텔수준으로 잘 갖춰져 있었고, 객실규모가 큰 것으로 보아 방문객이 많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첫 날은 대중과 함께 좌선하는 것으로 무사히 넘어갔다.

둘째 날 오전은 불광사내 전시관과 도서관, 사경실, 강의실, 부속학교 등을 돌아보며 불광사가 대만 최대도량임을 실감했다. 지금도 뒷산에 불사가 진행 중이라 한다.

오후에는 송광사에서 중국어 특강을 해주시는 등 송광사와 인연이 깊은 윤옥스님께서 카오슝 인근 여러 사찰을 안내해 주셨는데 20년 넘게 중창불사가 한참 진행 중인 묘숭사妙崇寺라는 절을 참배하면서 눈이 부실 정도로 장엄하게 중창하는 모습에 머리가 숙여졌다.

셋째 날은 불광사 측에서 미리 예매한 花蓮행 비행기로 이동하여 한국에서도 유명한 자재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복지불사의 성공적인 예를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2년 과정으로 자재병원에서 경험을 쌓는다고 한다.

오후에는 타이루거 협곡을 들린 후 불광사 말사인 佛光山花蓮禪淨中心을 참배하고 하루 묵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 두 가지는, 안내를 맡은 분이 오래전에 영어선생을 하셨던 60세 가까운 보살님이셨고, 운전하라 영어로 얘기하시라 바쁜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다음에 한국에 오면 안내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렸다. 또 한 가지는 대만에서는 샹부샤부라고 부르는 오뎅찌개 인데 화련불광사 여러 대중과 함께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스님이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샹부샤부밖에 없었고, 대만 사람들도 즐겨 먹는 음식이었다.

넷째 날은 기차를 타고 宜蘭에 들러 1993년에 설립된 佛光人文社會學院(불광대학)을 견학했는데 1,000여 명의 학생과 80여 명의 교수진이 공부 중이었으며 그중에 스님도 12분이 공부중이라 한다.

저녁에는 蘭陽別院에서 묵었는데 시내에 14층 빌딩전체가 蘭陽別院으로써 14층 법당, 박물관, 객실, 찻집 등 모든 시설이 건물 내에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새벽예불 때는 법화경을 독송했는데 중간 중간에 발음이 같아 따라할 수 있었고, 다른 말사들도 적당한 경전을 선택해 예불때 경전독송을 하고 있었다.

다섯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타이페이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基隆에 있는

수선사修禪寺(T.88622-458-8253, 주지 대경스님)라는 한국 절에서 머물면서 도자기로 유명한 鶯歌, 고가도로 밑 재래시장인 玉市(옥시장),

光華商場(컴퓨터상가), 경전을 무상보시하는 佛陀教育基金會를 방문했다. 참고로 佛陀教育基金會 가는 길은 선도사 지하철역에서 8번문으로 나와 도보 8분 거리이고, 타이페이역에서 택시비로 기본요금인 70元 내외로 가깝다.

인터넷주소는 www.budaedu.org 이고 전화 T.886-2-2395-1198 팩스 F.886-2-2391-3415이며 한국에서도 주문가능하고 주문하면 선편으로 무료 우송해준다.

3. 대만불교의 특징

일주일 만에 불광사 본말사와 산하단체만을 견학하고서 대만불교를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지만, 대만불교는 山門 중심이고, 불광사는 대만불교를 대표하는 四大山門의 하나로써 대만불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어 불광사를 통해 대만불교를 말해도 좋을 것 같다.

불광사의 종지는, 문화사업을 통한 불교전파, 교육사업을 통한 인재양성, 자선사업을 통한 사회복지, 법회활동을 통한 마음정화이다. 도심소재 모든 말사가 10층이 넘는 현대건물에서 문화, 복지,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20개국을 넘는 해외포교에 힘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해외 포교의 단적인 예를 들면, 올해 2월에 캘리포니아 스탠포드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을 방문하여 흑시나 하고 불교 서고를 찾아보았는데 네 줄의 불교 서가에

대부분의 서적이 대만 불교서적이었고 한국어 불교서적을 찾지 못해 아쉬운 적이 있다. 불광사는 천명이 넘는 전통 강원(불학원)과 함께, 일반대학을 세워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었는데 비구스님이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불광사 불학원은 비구:비구니 비율이 1:9이고 대만불교 평균비율은 37이라고 한다. 특히 불광사는 출가연령을 35세로 제한하고 불학원내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모두 두고 완전의무교육을 통해 인재양성에 힘쓰는 모습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중국불교는 정토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광사는 저녁예불 후 모든 대중이 안행하여 선방에 들어가 한 시간 반 동안 좌선을 한다는 것이었다. 아쉬운 점은 남화대학에 한국스님 한 분이 유학중이라는 소식만 들었을 뿐, 대만에 유학 온 한국스님이 없다는 점이였다. 잘못 들었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자비기금회, 불광진료소, 인애의집, 불광정사, 대자육아원 등 산하단체를 통해 빈민구제, 의료, 재난복구 등 사회복지포교를 오랜 기간 동안 하여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활에 잘 배어있음을 느꼈다. 결국 僧이 輕하면 法도 輕하고, 僧이 重하면 法도 重하다는 평범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진리의 중요함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대만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을 꼽는다면, 승가는 물론, 재가의 철저한 계율의식이다. 계율과 관련된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다. 대만을 떠나기 전날 경전을 무상보시 한다는 佛陀教育基金會에 들러 여러 경전을 부탁하고 고마운 마음에 약간의 시주금을 내놓았는데, 직원은 내게 영수증을 주면서 이 시주금을 어느 명목에 쓸지 표시해 달라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기금회의 각종 세금, 출판비 등 열 가지가 넘는 항목을 보고, 공사 구분은 물론이고 공금까지도 이렇게 철저히 구분하는 모습을 보고 대만불교의 저력을 느꼈다.

4. 맺음말

대만에는 한국 절이 수선사(修禪寺)와 홍법원(弘法院)

두 곳이 있다. 두 곳 모두 대만 신도들의 보시금으로 세운 절이지만 한국불교를 전하는 교두보이다. 이미 한국에는 티벳 절과 대만 절, 남방불교권 절들이 세워졌고 여러 나라의 불교가 한국전통불교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간화선이 최근 언론의 쟁점이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이 질문할 것이다. 무엇이 한국불교이고, 무엇이 한국불교의 장점이냐고? 마당에 붉게 물들어 가는 백일홍이 더욱 붉다. 定慧社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 ▶ 4년의 짧지 않은 시간을 묵묵히 정진하고 인내하여 드디어 결실을 맺으신 스님들께 존경심과 축하의 인사드립니다. 졸업 후에도 후학들의 나침반이 되어 주십시오.
- ▶ 국사로 순례하며 험다 및 부도탑 주변정비작업을 했습니다. 목우가풍을 이어온 발자취를 경건한 걸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송광사를 보이지 않게 지켜주시는 국사님과 이곳에서 공부하다 가신 스님들께 삼가 참배 드립니다. 저희 후학들은 선덕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열심히 정진 하겠습니다.
- ▶ 청전스님 특강에 학인스님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수행자로서 지켜야할 덕목인 계행과 겸허한 자기반성을 되새겨보게 하였습니다.
- ▶ 반결제 원족산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조계산 굴목재를 넘어 선암사를 경유하여 대원사를 찾았습니다. 티벳박물관에서 학인스님들이 관속에 들어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大死大?!
-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산림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이 인연공덕으로 꼭 성불하십시오.
- ▶ 전대중이 모여 해마다 하는 전통이 되어버린 감자운력, 올해도 찬상에서 감지구경 많이 하겠네!
- ▶ 세납이 믿기지 않는 회주스님의 근력과 지혜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2004년 1월 30일 무장무애 지장기도 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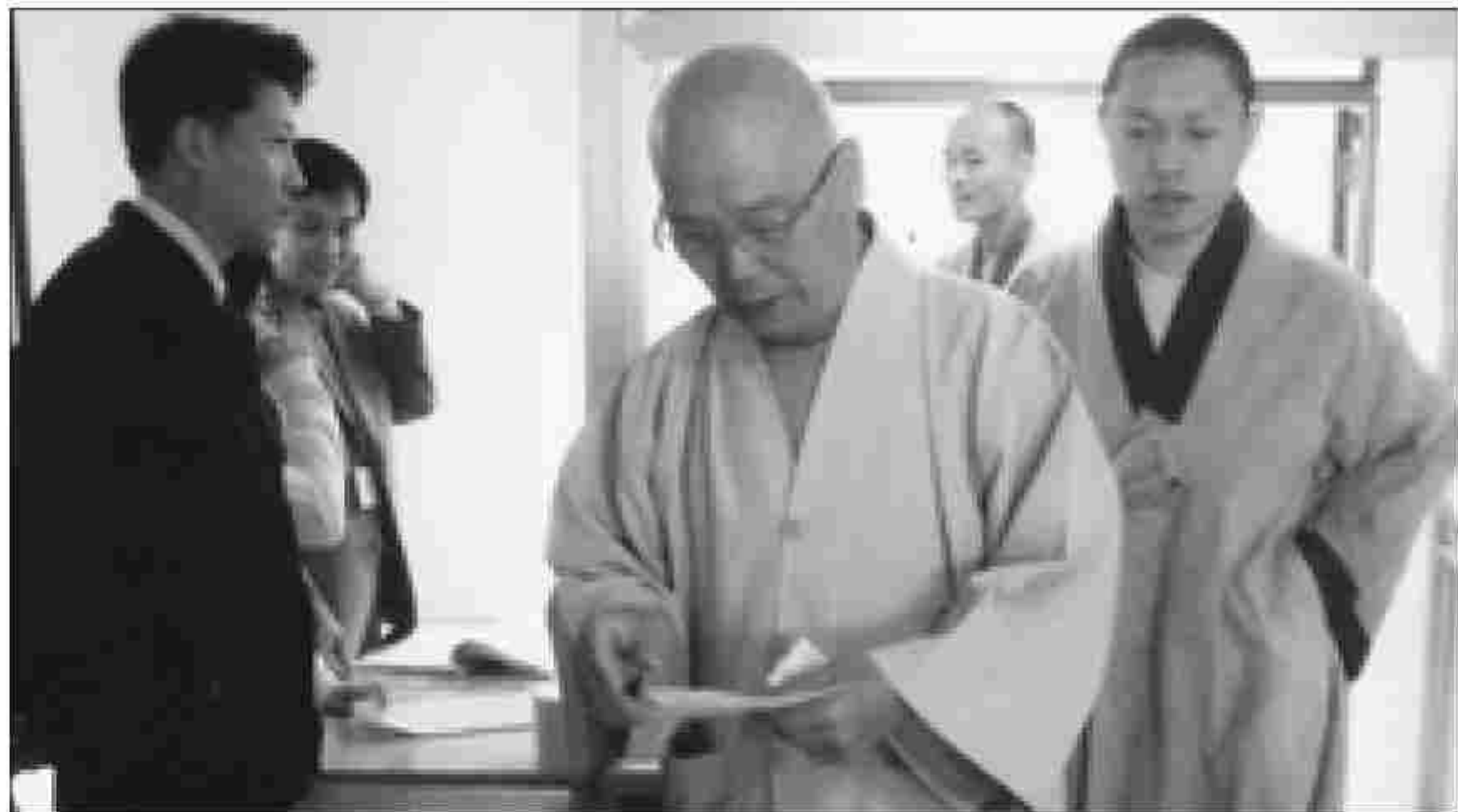
1월 31일 회주스님 특강



2월 4일 강원·울원 졸업식 및 장학금 수여식



2월 26일~3월 19일 제26기 행자교육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4월 21일 소방훈련



4월 22일 불교문헌의 조명 국제학술대회



4월 24일 대만 불광사 성운대사 법문



5월 5일 중국다례 시연회



5월 7일
국사로 다례 및 정비



5월 12일 학감스님 특강(선원청규)



5월 14일~15일 삼월불사



5월 26일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



6월 9일 발운력



6월 24일 헌혈



6월 25일
일각대선사 8주기 추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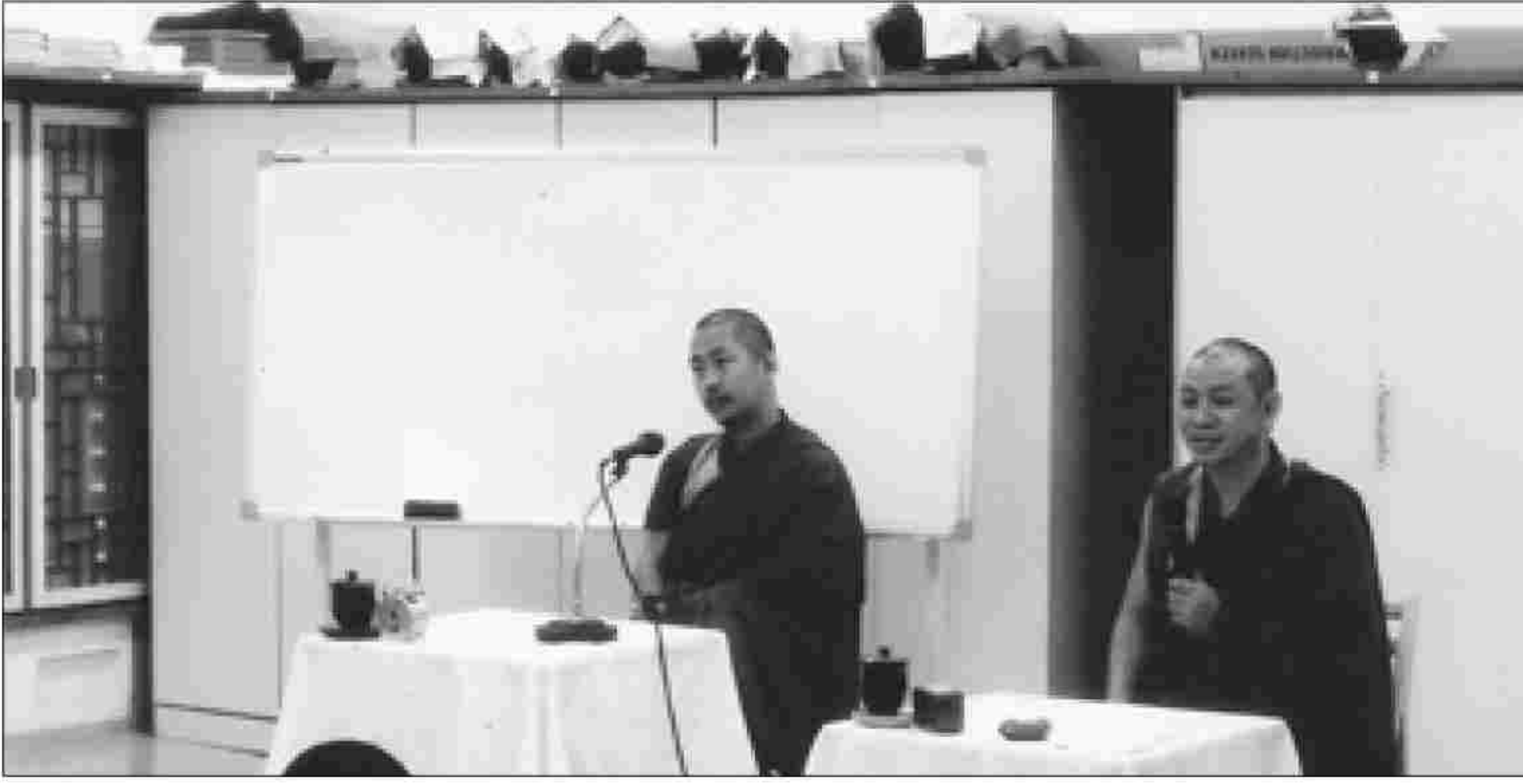
6월 27일 감자운력



6월 29일 서예지도



7월 3일 청전스님 특강(수행체험기)



7월 14일
초펠스님 특강(티벳불교)



7월 19일 반결제 원족산행(대원사)



8월 8일~11일 청소년 수련회



8월 11일~14일 어린이 수련회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꽃꽂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503490-01-001097 예금주: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810-02-120594 예금주: 박채균
연락처: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0-930) 송광사 강원 혜광스님 061)755-5302

강의(특강) 테잎 보급

송광사에서는 특별 강의 테잎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카세트 테잎

지운스님 · 법화경 1~2 33개 | 50,000원
정연스님 · 인도철학 18개 | 25,000원
정화스님 · 유식 30송 11개 | 25,000원
정화스님 · 중론中論 23개 | 30,000원
해거스님 · 도덕경 16개 | 23,000원
고우스님 · 선요禪要 25개 | 30,000원

구입처: 송광사 강원 지장

☎061)755-5302(전화주문 받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501676-01-000689 송광사 지장

테잎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쓰입니다.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조계종 총무부장스님·보성 대원사·파주 법화사·광주 무각사·광주 증심사·부산 문수사·부산 관음사·서울 원각사·서울 길상사·장흥 보림사·송광사 별교포교당·양산 통도사·서울 박정련 화님·울산 양대련화님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청주 광명사·장수 성관사·남양주 성관사·성남 정중선원·광주 광덕사·거창 아림사 영각스님·광주 정안사·인애원·화순 만연사·경기도 흥법사·영암 도갑사·제주도 남국선원·금강정사·조양순님·지혜장님·정련 화님·비로해님·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대전 모듬회·진주 이봉환님·늘푸른 죽향농원·광주 한국제다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조영숙님·류인석님·여경희님·김갑숙님·이영숙님·김현정님·정분선님·한동화님·문금자님·염희선님·김익영님

후원안내

「정혜사」誌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 500660-01-001029

예금주 : 송광사 정혜사

구독안내

주소 변경이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편집후기

인효

어제부터 내린 비가 오늘
개이니 저 멀리 조계산 너머에서
파란 가을 하늘이 낙엽내음을
퐁기며 달려오고 있음이
느껴진다.

이제 이 글의 종점을 찍으면
만 2년 6개월의 소임을 마친다.
새삼스럽게 佛菩薩님과 대중
스님들, 그리고 편집위원
스님들께 합장하고 감사의
절을 올린다.

혜명

짧은 기간에 한 권의 책을
갈무리하니 이 공덕을 부처님
전에 회향합니다.

힘겨운 작업에도 묵묵히
수순해준 편집위원 스님들
고맙소! 미소를 머금고
다음날에 또 기약합니다.

인궁

지난 걸음 어데 가고
내딛을 걸음 어데 있는가
이 걸음걸음 머무를 수 없기에
그냥 그렇게 놓고 간다.

청사

좀 더 충실히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누가 다시 하더라도
정혜사가 송광사에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갑신년 하안거 결제 송광사 대중



輕輕踏地恐人知하라 語笑分明更莫疑하면
智者至今猛提取하여 莫待天明失去鷄하라

살풋살풋 땅을 밟아서 남이 알까 두려워하라.
말과 웃음에 분명해서 다시 의심이 없거든
지혜 있는 이는 이 때 용맹을 다해 정진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려 닭 울 때를 놓치지 말라.

대중大衆은 결제해제에 상관없이 부지런히 정진精進하라.



八角亭 亞字刑大閣殿 三三坐席 어데멘고.
문노라 魚鳥들아 너희들은 알것이라
無用님 어데 가시고 觀物 今만 傳來고

-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가운데서 -

수석정水石亭 1962년 큰비에 떠내려가고 없었으나, 2002년 11월에 복원 불사하여 지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절 뒤 계곡물이 모여 소沼를 이룬 절벽 위에 있다.